

제 출 문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귀하

본 보고서를 “대구시 아동돌봄 현황조사와 진단을 통한
아동돌봄체계 구축방안 연구”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 5. 4.

젠더와 자치분권 연구소

김 선 희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대구시돌봄정책연구회 육정미 대표
의원 권기훈, 김재용, 김재우, 김태우, 류종우,
의원 박종필, 이재숙, 전경원, 정일균, 하중환, 허시영

대구시 아동돌봄 현황조사와 진단을 통한 아동돌봄체계 구축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2023. 5. 4.

연구수행기관 책임연구원

김 선 희(젠더와 자치분권연구소 대표, 행정학 박사)

참여연구원

김 보 영(영남대학교 휴먼서비스학과 교수)

성 지 혜(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요 약 문

I. 제 목

“대구시 아동돌봄 현황조사와 진단을 통한 아동돌봄체계 구축방안 연구”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는 국가 존립 위기로 예측됨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위한 돌봄의 공공화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됨, 현재 부처별 다양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돌봄공백은 여전히 실정임
- 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아동돌봄서비스의 문제점을 다양한 관계자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국내의 선진지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의 자원에 기반한 통합적 아동돌봄 운영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III. 연구내용 및 범위

- 아동돌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의 법적 근거와 현황을 살펴보고 타지역의 선진적 초등돌봄정책 사례 조사를 통해 수요자 욕구에 맞는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의 보편적인 이용과 접근, 지속적인 이용 연계가 가능한 돌봄서비스 운영기반 마련 방안을 제시함
- 대구시의 아동돌봄서비스 현황 조사 및 관계자 토론회, 학부모 FGI, 선진지 방문 등을 실시함

IV. 연구결과

- 대구시의 아동돌봄서비스 이용 현황은 구·군별로 다르게 나타남. 상시적인 돌봄서비스 이용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서구이며 지역아동센터 개소 및 이용자 수가 많으며 이용자 비율이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수성구이며 수성구는 다함께돌봄센터가 대구시 전체 7개소 중 4개소로 많음을 알 수 있음
- 대구시 돌봄서비스 운영자 및 종사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하면 다섯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먼저 대구시는 틈새돌봄사업이라는 대구형 돌봄사업을 코로나팬데믹 기간에 효과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이를 수행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오랜 돌봄서비스의 노하우를 살려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수행하였으며, 사업 수행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수그러들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둘째, 대구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1명의 전담사가 2개의 반을 관리하는 2실 1전담사 제도를 두고 있어 전담인력 활용방안이 보완되어야 함. 셋째, 돌봄의 패러다임이 개인에서 공공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적실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상생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임. 넷째, 향후 코로나팬데믹 시기를 어렵게 견뎌낸 아동들의 정서적 불안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아동들에 대한 돌봄이 보다 촘촘하게 설계되어야 함. 마지막으로 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돌봄전담사의 전문성 제고로 안정적이며 탄력적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야 함
- 아동돌봄 선진지 방문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시사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교육과 돌봄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새로운 모델 창출의 주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하며 이에 따르는 예산 확보가 사업의 실행요소로서 가장 중요함. 교육감과 단체장의 협업이 통합돌봄을 가능하게 하며 아동에 대한 교육기능과 보육기능의 분리보다는 교육과 보육을 함께 수행할 때 돌봄의 효과가 커지며 이때 마을의 다양한 물적·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음. 고용승계를 통한 인력의 안정적 활용으로 제도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초기에 계획했던

일정한 돌봄시간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돌봄정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를 확보함

- FGI를 실시, 대구시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 의견을 들어본 결과 초등학교 입학 후 돌봄 수요는 늘지만 돌봄 제공시간과 퇴근 시간 불일치로 적절한 돌봄 어려워 직장 그만두게 됨을 아쉬워 함. 초등돌봄서비스 이용경험의 특징으로 까다로운 이용조건에 맞는 서류 작업이 힘들며 초등돌봄교실은 학교 안 공간이라 안전하지만 돌봄이 없는 형식적 돌봄이 이루어짐을 토로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및 센터별 서비스 질이 다름을 우려함. 늘봄학교의 추진 방안으로 안전하고 유연하며 즐거운 돌봄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에듀케어 돌봄공백 해소를 기대하고 있음. 무엇보다 학교가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며 부족한 인력은 경력단절 여성, 노인일자리 연계로 확충되기를 제안함
- 대구시의 아동돌봄서비스와 관련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아동돌봄서비스가 다양한 부처에 의해 여러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되며 정보획득도 용이하지 않음. 여전히 돌봄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돌봄이 필요한 시간은 일치하지 않아 필요한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획일적인 통제가 이루어져 돌봄전담사와 학생, 그리고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학교 단위, 시설 단위의 돌봄으로 수요확보와 배치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어려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연계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사회 자원의 적절한 배치가 어렵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이에 통합적 아동돌봄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늘봄학교의 추진방향, 지역단위 돌봄체계 구성, 초등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할 수 있음. 늘봄학교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 충분하고 편안한 돌봄공간 확보 및 자유로운 입출입과 통지시스템과 안전한 이동, 식사와 간식의 질적 보장 및 인력확충이 이루어져야 함. 학부모들의 정보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활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등돌봄 통합 플랫폼을 구축, 학교돌봄만 아니라 마을돌봄도 자격조

건에 따라 1, 2, 3 지망 순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돌봄은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수요를 확보하여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초등돌봄 통합 플랫폼은 대구시 및 각 구군의 미래교육협의회가 운영 및 관리하여 책임감 있는 돌봄 관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V. 연구결과 활용에 대한 건의

- 대구시의 아동돌봄정책 수행시 고려해야 할 점 및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청과 대구시의 아동돌봄서비스 전달체계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
- 특히 '2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늘봄정책에 대한 정책적 제언으로 학부모 친화적이며 아동이 주체가 되는 초등 전일제 교육이 이루어져 양육자의 부담완화 및 초등학령기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음
- 돌봄에 대한 가치와 역할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및 대구형 아동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제·개정과 돌봄서비스 적실성 제고

목 차

I. 연구배경	3
1. 연구 필요성	3
2. 연구내용과 방법	6
II. 문헌 연구	11
1. 아동돌봄정책의 흐름	11
2. 아동돌봄서비스의 특징	20
III. 대구시 아동돌봄서비스 현황	29
1. 인구 구성	29
2. 아동돌봄서비스 이용현황	30
3. 대구형 온종일돌봄	33
4. 대구형 늘봄학교	36
5. 대구시 아동돌봄 현장의 목소리	43
IV. 아동돌봄 선진지 사례	53
1. 경상남도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53
2. 서울 ‘중구형 초등돌봄교실’	56
3. 서울 도봉구 ‘지역연계 방과후학교’	59
V. 학부모 FGI 분석결과	67
1. 초등돌봄의 문제	71
2. 초등돌봄의 이용경험	80
3. 늘봄학교의 추진방향	99
VI. 결론 및 제언	117
1. 요약 및 결론	117
2. 정책적 제언	125
참고문헌	131
부록. 인터뷰 질문지	136

표 목차

<표 II.1> 아동돌봄정책 관련 주체별 입장	15
<표 II.2> 늘봄학교 관련 언론보도 사례	17
<표 II.3> 아동돌봄정책의 변화	19
<표 II.4> 아동돌봄정책 현황	25
<표 III.1> 기초자치단체별 인구 현황	29
<표 III.2> 아동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30
<표 III.3> 기초자치단체별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31
<표 III.4> 기초자치단체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현황	32
<표 III.5> 대구시 교육·돌봄 거점형 시범연구학교	37
<표 IV.1>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인적 구성	54
<표 IV.2> 학교와 구청의 역할 분담	60
<표 IV.3> 모두잇 센터 인력 및 역할	61
<표 V.1> 면접대상자 특성	67

그림 목차

<그림 II.1> 늘봄학교를 통해 달라지는 점	18
<그림 IV.1> 돌봄체계 추진과정	57
<그림 V.1> 학부모 FGI 의견	113

CHAPTER

01

연구배경

1. 연구 필요성
2. 연구내용과 방법

I. 연구배경

1. 연구 필요성

□ 돌봄 패러다임의 변화: 개인에서 공공의 영역으로

-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는 국가 존립 위기로 예측됨
 - 생산가능인구 저하로 인한 국가경쟁력의 위기와 사회적 부양부담 문제 발생
 - 2022년 전국 합계출산율은 0.78로 세계 기록을 경신하는 가운데 대구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권(0.76)
- 국가존립 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과정은 돌봄의 공공화, 돌봄의 사회화 패러다임이 등장하는 계기가 됨¹⁾
- 더불어 사교육 의존에 따른 가정의 양육비 증가와 아동의 학력 격차는 사회불평등을 가속화하는 원인이 되므로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더욱 중요하게 대두됨

□ 초등돌봄 서비스는 늘었으나 사각지대 여전

- 아동시기의 돌봄경험은 성인의 기본적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경험이기
에 국가의 아동돌봄 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하지만 부모의 통상적 근무시간 동안 돌봄이 이루어지는 취학 전 돌봄과 달리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오히려 돌봄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 초등학교 시기는 정규 교육이 시작되는 시기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비해 교육부담과 함께 돌봄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시기임에도 부모의

1) 공교육기관인 학교라는 공간에 돌봄이 들어오게 된 원인과 과정을 분석하고 있는 김영빈(2022)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를 통한 저출산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가정과 개인의 영역에 머물던 아동돌봄을 공공의 영역으로 전환시켰다고 주장함

노동시간과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시간 간 불일치, 일시적이거나 긴급하게 발생하는 돌봄 공백 등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부재함에 따라 여성의 경력단절 및 방과 후 사교육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짐

- 30~4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는,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 (M-curve)은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시기에 취업을 그만두는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음²⁾

- 실제 아동돌봄서비스는 교육부의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와 아이돌봄사업 등 정부 부처별로 다양하게 공급되고 있지만 대상과 서비스가 중복되고,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아동돌봄정책이 교육체계와 복지체계로 구분되어 있고, 정책대상이나 서비스 내용이 비슷하지만 운영방식이나 전달체계가 달라서 중첩되거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문제가 있어 체계적 공급을 위한 변화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음(강지원·이세미, 2015; 배성우 외, 2020; 최근호 외 2021)
- 이러한 가운데 지난 1월 중앙정부는 초등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고 양질의 교육·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듀케어(Educare)정책으로 ‘늘봄학교’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초등돌봄 정책으로서 ‘늘봄교실’ 대두

- 문재인 정부는 부처 간 분절적 사업을 통합하여 지역적 특성과 상황에 맞는 통합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온종일돌봄정책’을 추진해 왔음
- 2019년 1월 아동복지법을 개선하여 ‘방과후 돌봄서비스지원’ 조문을

2) 미취학 아동에 대한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ECEC)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이지만(한국 92.2% OECD 83.8%, 2014년 기준) 이에 비해 초등학생의 방과후돌봄(out-of school care)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실정임(한국 12.5% OECD 29.0%, 2014년 기준)(장명림 등, 2018).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20년부터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을 위해 시설검색과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함

- 온종일돌봄정책의 목표는 2022년까지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에서 초등돌봄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하고 보건복지부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신규 설치함
- 지난 수년간 통합적 운영과 연계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봄의 법적기반이 부재하고 연계협력의 운영기반은 실질적인 협업으로 지속되지 않음(최윤경 외, 2022)
-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1월 9일 ‘교육·돌봄 국가 책임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초등 늘봄학교 추진방안’(이하 늘봄학교)을 발표함
 - 늘봄학교는 교육과 돌봄을 통합한다는 취지에서 맞춤형 돌봄을 강화하고 기존 오후 5시까지인 방과 후 돌봄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교육부는 경상북도를 비롯해 인천·대전·경기·전남 등 5개 시·도교육청을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선정하였으며 대구시는 자체적으로 각 지원청별 1개교를 선정,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정부 부처별, 정책별로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아동돌봄서비스의 문제점을 다양한 관계자의 입장에서 고찰하는 가운데 특히 수요자 입장에서 분석하고, 국내의 선진지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의 자원에 기반한 통합적 아동돌봄 운영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내용과 방법

가. 연구내용

□ 연구내용

- 아동돌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의 법적 근거와 현황
 - 주요 정책 및 관련 법령
 - 주요 돌봄서비스 운영 및 이용현황과 문제점

- 타지역의 선진적 초등돌봄정책 사례 조사
 - 서울시 중구의 초등돌봄교실, 서울시 도봉구의 지역연계 방과후 학교, 경상남도 창원시의 거점형 통합돌봄사례 조사
 - 이를 벤치마킹하여 수요자 욕구에 맞는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의 보편적인 이용과 접근, 지속적인 이용 연계가 가능한 돌봄서비스 운영기반 마련 방안을 제시함

- 연구질문
 - 첫째, 현재 대구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돌봄제도의 현황은 어떠한가
 - 둘째, 아동의 보호자가 인식하는 아동돌봄제도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 셋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동돌봄제도의 구축방안은 무엇인가?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아동돌봄 관련 법령, 정책과 사업과 관련된 각종 논문 및 학술보고서 검토

- 주요 지방자치단체 돌봄서비스 관련 연구보고서 검토
- 언론자료와 관련 홈페이지 검색

○ 학부모 FGI

- 학부모 면접대상자는 대구광역시 내 거주하며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함
- 지역, 이용서비스를 고려하여 의도적 표집 방법³⁾을 사용, 최종 22명의 면접대상자를 선정하였음
- FGI는 4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내용은 필사 후 필사본에 대한 질적 자료 분석을 실시함

○ 운영자 및 관계자 토론 내용 분석과 전문가 자문

- 현행 아동돌봄제도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동돌봄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2회의 토론회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아동돌봄 정책 전문가 3인의 자문을 받음
- 이때 1차 토론회는 자료집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2차 토론회는 녹취한 자료를 분석하였음

○ 선진지 방문 및 타운미팅을 통한 의견 수렴

- 창원에 소재한 경남 거점통합돌봄센터, 서울시 중구형 초등돌봄교실과 서울시 도봉구 지역연계 방과후학교를 방문하여 관계자를 면담함
- 최종보고회 시 인터뷰 참여자 및 서울 중구의 돌봄경험 학부모도 참여, 의견을 청취함

3)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 사용한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은 “연구자가 연구목적이나 주관적 판단에 의해 표본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모집단 전체를 대표하도록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모집단의 특정 부분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선정(황성동, 2015)”하는 방식임

CHAPTER

02

문헌 연구

1. 아동돌봄정책의 흐름
2. 아동돌봄서비스의 특징

Ⅱ. 문헌 연구

1. 아동돌봄정책의 흐름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실 도입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정책은 1991년 1월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보건복지부 주도로 학교, 복지관, 지역사회센터, 어린이집 등의 시설을 활용한 보육교실이 운영됨
 - 아동에 대한 보육은 1970년대 동네공부방⁴⁾ 등의 민간영역에서 출발하였으며 이후 복지관 등에서 실시됨
 - 아동돌봄정책은 전반적으로 영유아기 서비스가 먼저 발달하였으며 이후 영아기(신생아기), 아동기 순으로 확대됨. 초기에는 미취학 아동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학령기 아동들의 돌봄공백이 취업여성의 경력단절의 주요 원인(교육부, 2022)이라고 인지되면서 초등돌봄정책이 확대됨

□ 방과후 아동지도제도 도입

- 1995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으로 방과후학교가 도입되었으며 이러한 학교 기반 돌봄서비스의 도입 및 확대 계기는 1995년 5.31 교육개혁안과 1997년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들 수 있음
 - 5.31 교육개혁안에서 ‘개인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교육방법의 확립’이라는 소제목 하에 교육개혁 과제의 하나로 ‘방과후 교육 활동 활성화’가 등장함. 이어 1997년 6월 제4차 교육개혁 방안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학교가 아닌 대행업체가 유아 및 초등학교 시설을 활용하여

4) 공부방은 지역아동센터의 전신으로, 1980년대부터 생겨나 도시빈민지역, 공단지역, 농어촌지역 등을 중심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게 급식, 교육, 돌봄 등 종합적인 보살핌을 제공하며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 역할을 하였음(신동인, 2022:36)

방과후 아동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체적인 제안이 포함되며 학교 기반 돌봄서비스 도입이 공론화됨

-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학교 기반 돌봄서비스가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됨.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제 내로 흡수하기 위한 주요 대책으로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의 도입을 추진하였으며, 이후 2005년 전국 초·중·고등학교 48개교에 ‘방과후 학교’를 시범 운영하면서 맞벌이, 한부모, 빈곤 가정의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 및 지도할 수 있는 보육 프로그램이 도입됨
- 2003년 ‘방과 후 아동보육의 제도화방안’을 주제로 열린 여성정책포럼에서 방과 후 아동보육시설의 희망장소로 학교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초등학교 내 초등돌봄교실이 설치, 확대되는 단초를 제공함(김영빈, 2022: 10)
-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 이후 공교육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을 목적으로 방과후학교 정책이 시행되면서 초등보육교실을 방과후학교와 연계하였으며 2010년 초등학교 내 보육 교실이 현재와 같은 ‘초등돌봄교실’로 공식 명칭이 변경됨
- 초기의 초등 저학년 방과후교실은 맞벌이 가정 및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후 돌봄과 교육을 위한 사교육 수요를 학교에서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돌봄이 주목적은 아니었으나 점차 돌봄기능이 확대됨
 - 핵가족화와 여성취업을 및 한부모가정의 증가,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의 증가는 아동양육에 있어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다양한 부처의 돌봄서비스가 도입됨
- 주목할만한 아동돌봄정책의 변화는 ‘범정부 돌봄서비스 체계의 구축’을 들 수 있음.
 - 2016년 기준, 영유아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68.3%인 반면 초등학교 학생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12.5%로 ‘초등돌봄 절벽’이라 표현할 만큼 여전히 상대적 공급량은 적어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시기에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이 1만 6천여 명에 이르고(여성취업을 M커브)

가정 내 초등 저학년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초등돌봄은 시장화 현상을 보임

- 이에 2017년 정부는 초등돌봄서비스의 공급 부족, 돌봄의 사각지대를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온종일 돌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교육부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이 협력하는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사업을 추진함

□ 2018년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학교, 교육지원청, 지역사회 관련 기관·단체가 연계·협력하여(지자체-교육청 간 업무협약 체결 필수) 지역 내 돌봄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대상과 운영시간 및 공간,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임
- 온종일돌봄정책의 목표는 양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 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돌봄사업 간 연계 부족으로 유사한 사업이 중복되고 돌봄 사각지대가 여전히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음
 - 이를 통해 교육청-지자체가 돌봄 수요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수요자 중심의 안내·홍보, 신청, 배정 절차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 체제를 갖추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자체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기대했지만 그 성과는 미미함
- 여전히 초등돌봄교실과 부모 퇴근 시간 사이에 공백이 존재함으로써 초등돌봄교실만으로는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없으며, 교사 한 명이 돌보는 아동의 수가 많아서 돌봄의 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지속되고 (장수정·송다영·백경흔, 2019: 280-281) 돌봄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 깊이에 한계가 있고, 부모와의 소통도 제한되어 있어 단순히 머물렀다가 가는 정거장의 역할을 한다는 인식도 강함(장수정 외, 2019: 281)
- 또한 초등돌봄서비스는 인프라 확충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라는 양적 성장만을 강조하여 정책의 정체성과 지향점은 여전히 모호한 상

태로 남아있음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초등돌봄교실은 안전한 장소성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실제 가장 많은 대상이 이용하지만 교육의 질에 대한 의문과 돌봄전담사의 처우개선 등의 문제가 있음
- 현재의 초등돌봄교실은 학부모의 수요와 만족도가 높은 정책이지만 이때 ‘학부모의 만족도’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정책의 대상인 학생의 입장이 아니라 학부모가 공교육기관인 학교에 맡긴다는 ‘안전돌봄에 대한 학부모의 수요’와 선호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음. 실제 초등돌봄교실정책은 학생정책이 아닌 학부모정책으로 설계되어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김영빈, 2022: 73) 비판이 있음
- 최윤경 외(2022)에 의하면 초등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공공 돌봄서비스를 질문한 결과 53.6%가 초등방과후 과정을, 26.4%가 초등돌봄교실(학교돌봄터 포함)을 이용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5.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1%, 다함께돌봄센터 2.8%, 온종일/지자체돌봄센터 2.4%로 나타남
- 초등자녀가 방과후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사설학원을 다니고 있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58.7%로 가장 많음. 또한 ‘이용자격이 되지 않아서’, ‘이용시간이 맞지 않아서’ 라는 응답은 각각 17% 정도로, 이용 의향이 있으나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17% 이상으로 나타남
-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과정’은 높은 인지도와 이용 의향, 만족도에 비해 이용가능성(접근성)과 관련 정보의 충분성이 떨어짐. 이에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이용가능성) 제고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이상에서 기존 돌봄서비스의 문제점으로 학교나 주거공간 근처를 선호하지만 서비스의 질이 낮으며 무엇보다 돌봄공백시간(오후 4-6시 공적 돌봄 후 부모 귀가시까지)이 존재하고, 미이용자 중 신규 이용희망자가 다수이나 수용성에 대한 불안감, 종사자의 낮은 전문성,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 등을 들 수 있음(배성우 외, 2020; 최권호 외, 2021)
- 초등돌봄을 둘러싼 주체별 주요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II.1> 아동돌봄 관련 주체별 입장

주체	주요 입장
학부모	초등돌봄 양적 확대 및 프로그램 질 개선과 다양화 학교 안에서의 방과후 돌봄 선호
교사	학교는 돌봄보다 교육하는 곳, 돌봄 업무 경감으로 교육활동 정상화
방과후·돌봄 노조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방안 마련
학계·현장전문가	통합적 운영방안 마련해야 다양한 교육청-지자체 연계협력 모델 필요

○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2023년 1월 ‘늘봄학교’를 발표함

□ 2023년 늘봄학교 도입, 초등 전일제교육 실시

○ 늘봄학교는 ‘초등 전일제교육’⁵⁾이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으로 채택된, 이를 대신하는 용어로서 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금까지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여 돌봄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방안임

- 최근 4년간 수요조사 결과 초등돌봄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희망하는 돌봄서비스는 학교 내 초등돌봄교실을 가장 선호함⁶⁾

○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의하면 늘봄학교의 주요과제는 돌봄유형 다양화 및 서비스 질 제고, 늘봄학교 운영체제 구축 등임

- 돌봄 유형의 다양화 및 내실화 방안으로 운영시간의 단계적 확대, 아동친화적 돌봄 공간 마련, 거점형 돌봄모델 확산 등이 있으며 늘봄학교 운영체제 구축 방안으로 학교 업무경감을 위한 전담 운영체제 구축, 지역사회 연계·협력 강화, 시범운영을 통한 성공모델 확산 등이 제시됨

5) 현 정부의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 초등돌봄 관련 과제는 국정과제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실천과제 84-2. 초등 전일제 교육으로 부모의 교육부담 대폭 완화로 나타남

6) 학부모는 학교 울타리 밖으로 차량 이동하는 것을 불안해하며 가능하면 학교 안에서 돌봄이 이루어지기를 원함(교육부, 늘봄학교 추진 방안(안), 2023).

- 교육부는 교사 업무경감을 위해 단위학교 차원에서 운영되던 방과후 업무를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중심의 지역단위 운영체제로 전환하며 기존에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방과후·늘봄지원센터’로 확대하기로 함.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돌봄 업무 담당 인력은 약 260명인데 올해에는 120명을 증원해 센터 전담 인력으로 배치하며 이들이 단위학교에서 처리하던 돌봄교실 행정업무를 담당하기로 함
- 늘봄학교 발표일 1월 9일부터 1월 15일까지 일주일간 전국일간지에 게재된 기사는 아래 표와 같음.⁷⁾ 제목을 보면 늘봄학교 내용을 소개하는 보도기사가 11건이며 해설기사 및 논설은 늘봄학교가 이루어지는 학교현장의 업무 과중에 대한 우려가 주를 이루며 특히 교사의 업무 과중에 대한 논의가 다수임을 알 수 있음
- 기사 내용을 볼 때 교육현장에서의 기대와 우려는 대표적으로 교사의 업무가 늘어나고 돌봄과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성장기 아이들이 지나치게 가정과 분리돼서는 안 되고, 학부모들의 노동시간을 개선하는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돌봄전담사, 방과 후 전담사, 특수교육지도사 등의 노동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므로 노동환경 후퇴를 막을 대책이 필요함을 덧붙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초등돌봄교실 업무에서 교사를 분리하고, 돌봄교실 운영 주체와 공간을 학교에서 분리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며 국가가 예산을 책임지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돌봄체계 마련을 요구함
-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방과 후 수업·돌봄 대기 인원은 연간 1만 5,000명에 달하며 5시까지의 돌봄조차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당장 2년 뒤 모든 학교 여건이 좋아지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음

7)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https://www.bigkinds.or.kr> 검색함(검색일 2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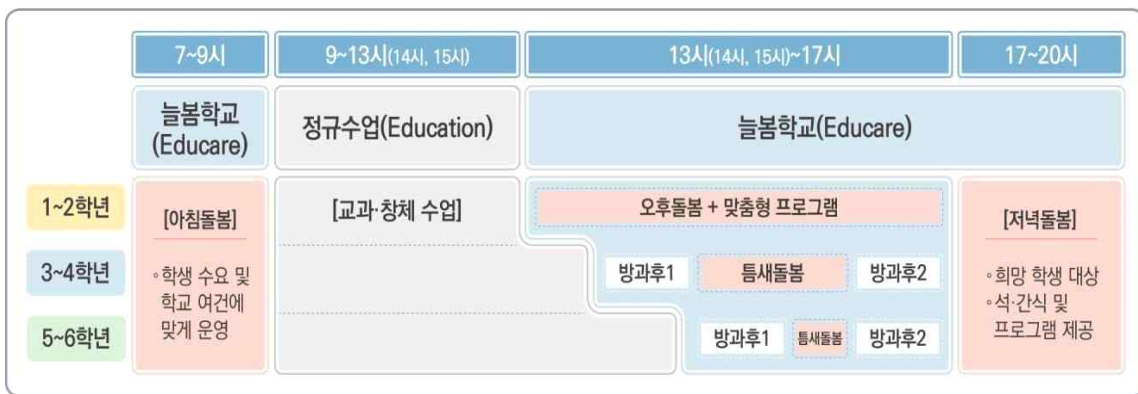
<표 II.2> 늘봄학교 관련 언론보도 사례

기사 제목	보도 일간지
늘봄학교 추진 놓고… 학부모 “대체로 긍정”, 교사는 “부담 증가”	문화일보
초등 돌봄교실 2025년부터 ‘저녁 8시까지’…“석식도 제공”	한겨레
오전 7시~오후 8시 아무때나...2025년 전국서 '초등 늘봄학교'	중앙일보
오후 8시까지 돌보는 늘봄학교 실시…초1 방과 후 공백 메운다	세계일보
2025년부터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 돌봄교실 이용… 오후 8시까지	경향신문
초등 돌봄교실 저녁 8시까지… 1학기부터 전국 200校 시범운영	조선일보
“교사 업무 과중” “자칫하면 방치” 늘봄학교 두고 나오는 우려들	경향신문
'늘봄학교'에 기대·우려 교차…“일-가정 균형이 근본 해결책”	세계일보
초등학생 돌봄, 2025년 오전 7시~오후 8시로 넓힌다	서울신문
‘방과후 공백’ 초등생 밤 8시까지 돌봐준다	세계일보
맞벌이 가정 위한 초등 아침돌봄 신설… 저녁돌봄은 8시까지 확대	한국일보
‘학원 뺑뺑이’ 멈추게 초등돌봄 밤 8시까지	경향신문
‘밤8시까지’ 초등 늘봄학교 발표… 현장선 “누가 돌봐요?”	국민일보
전국 초등 방과후 돌봄, 2025년부터 오후 8시까지 연장	동아일보
[사설] 늘봄학교 방안, 방과후 교육·보육의 틀까지 제시해야	국민일보
아침 7시~오후 8시 초등 돌봄교실 확대	서울신문
‘1만5천명’ 돌봄 대기 해소?…발표서 빠진 노동조건 개선도 과제	한겨레
학부모들 “방과후 프로그램 다양화해야” VS 교육 현장선 “업무 과중·질 저하 우려”	연합뉴스
서울 초6·중3, '기초학력 보장 학기제' 도입…방학에도 1대1 지도	중앙일보
[기자가만난세상] 늘봄학교 다닐 수 있을까	세계일보

- 늘봄학교는 전체 초등학교(6,100곳)의 3% 정도인 200곳에서 시범운영되며 이를 통해 획기적인 성공모델보다 안정적인 돌봄환경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늘봄학교 추진방안의 핵심은 앞으로 5년 동안 최소 4조 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 늘리고, 지역단위 전담

운영센터 개설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내용임. 이때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단순한 교육 시간과 과정의 변화가 아니라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는 일임. 2021년 기준 초등학교 총 사교육비는 10조 5000억 원(1인당 32만8000 원)에 달하며,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8배나 차이가 나므로 초등학생 때부터 학력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일임

<그림 II.1> 늘봄학교를 통해 달라지는 점



자료: 교육부(2023)

- 이상에서 아동돌봄정책의 흐름을 간단히 살펴본 결과 아동에 대한 돌봄정책은 학교 밖의 보육교실에서 학교 안의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이 주를 이루는 제도로 변화되었으며 이후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을 통한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이 강조되었으며, 2023년 에듀케어 및 저녁돌봄을 강화하는 늘봄교실로 변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음
- 방과후학교가 창의융합형 인재육성에 기여하며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완화 등을 목표로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초등돌봄교실은 모든 아이가 행복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삼고 있어 초등돌봄교실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학교라는 교육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돌봄 기능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제도임을 알 수 있음
- 향후의 아동돌봄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아동의 관점에서 생각하며, 돌봄서비스 이용자격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임. 아동은 어리고 돌봄대

상이라는 이유로 권리주체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점에서⁸⁾ 아동의 ‘돌봄받을 권리’에 대한 이해(백경흔, 2022)와 더불어 대부분의 아동돌봄정책이 서비스 유형에 따라 자격요건을 두고 이용이 제한되는 상황을 극복하고(김은정·장수정, 2020) 보편적 지원을 위한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하여야 할 것임

○ 이상의 아동돌봄정책의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II.3> 아동돌봄정책의 변화

연도	주요 특징
1995	방과 후 아동지도제도 도입
1996	방과후 아동지도 활성화방안 발표, 학교 내 아동돌봄서비스 등장
2004	방과후 학교 내 저학년 대상으로 초등돌봄교실 운영
2007	방과후지원센터 구축
2009	종일돌봄교실 시범운영
2010	초등보육교실을 초등돌봄교실로 명칭 변경
2011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시범운영, 아침돌봄, 오후돌봄, 저녁돌봄 제공
2013	초등 방과후 돌봄강화 모델학교 시범운영
2014	초등 방과후 돌봄 운영확대계획 발표 1~2학년 중 희망학생 대상 초등돌봄교실 운영
2018	온종일돌봄정책 발표
2020	초등돌봄교실 4학년으로 확대 코로나19 관련 긴급돌봄 운영
2021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 발표,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2023	늘봄학교 시범운영

8) 2022년 저출산 고령산고령사회위원회가 시행한 ‘아동돌봄정책포럼’에서 아동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모색을 논함. 이때 아동돌봄서비스는 주체가 수요자인 아동으로 변화되어 이 땅의 모든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돌봄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와 관련, 신동인(2022)은 대부분의 돌봄 제도가 제공 기관 중심으로 구성 및 시행되고 있으며 수요자 안에서도 양육자의 의견이 중시되어 실질적 아동의 욕구가 배제되고 주변화됨을 강조함

2. 아동돌봄서비스의 특징⁹⁾

□ 초등돌봄교실

- 초등돌봄교실은 별도의 시설(전용 또는 겸용교실)이 갖추어진 공간에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이외에 보육과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돌봄프로그램으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 돌봄 정책 중 대표적 사업임
- 제도의 운영은 법적 근거 없이 초·중등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방과후 학교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됨
- 초등돌봄교실은 1995년 교육개혁 발표에 따라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방과후교실이 도입되면서 시작되었으며 1996년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서울시 상암초등학교 등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나 경제위기로 확대되지 못하고(신향희, 2022) 이후 교육부는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따른 ‘특기적성교육’으로 학교 내 유휴교실을 이용하여 시범운영 함
- 초등 저학년 방과후교실로 시작한 ‘초등돌봄교실’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다자녀 가정 등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이지만 주로 초등학교 1, 2학년 위주로 운영됨
- 초등돌봄교실은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고, 가장 많은 대상이 이용하지만 교육청과 학교의 모호한 책임소재, 초등돌봄전담사의 처우개선 및 프로그램의 질 제고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기에 관련업무의 책임성이 교사에게 부여됨으로써 교사의 업무가중과 이에 따른 수업준비 부족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9)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은 방과 후에 실시된다는 점은 같으나 초등돌봄교실은 운영시간이 더 넓고, 대상도 희망자만이 아니라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임. 방과후학교는 특기적성과 교과보충프로그램으로 사교육 경감과 방과 후 안전보호와 꿈과 끼를 기르기 위한 프로그램이라(신향희, 2022) 돌봄보다 교육의 성격이 강하므로 돌봄서비스 설명에서 제외함

- 초등돌봄교실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돌봄서비스 활성화”가 주요과제지만 실제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학교 내 돌봄시설로서의 장점을 살리되 다양한 학교 밖 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에 관심가질 필요가 있음

□ 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시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추가되면서 법제화되었음.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신고제 아동복지시설로서 초등돌봄교실에 이어 다수에게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음.
-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대상은 주로 돌봄 취약아동이라는 점에서 서비스의 의의가 다양함
 - 취약아동은 선정기준에 따라 소득 기준, 가구 특성 기준, 연령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의 아동 또는 돌봄 특례에 해당하는 아동을 의미하며, 일반아동은 연령 기준을 만족하는 아동을 의미함
 - 2021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에 의하면 시설별 신고정원의 60% 이상은 돌봄취약아동이어야 하며, 일반아동은 40% 범위 내에서 등록 가능함
- 지역아동센터는 주 5일, 1일 8시간 이상을 상시 운영하며, 학기 중에는 14시부터 19시까지, 방학 중에는 12시부터 17시까지 필수 운영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상학생에게 충분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음
-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배치기준에 따라 시설장1인, 교사인 생활복지사 1~2인으로 운영되고 있어 수요나 역할에 비해 시설이 영세하며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와 과업이 많아 외부자원의 동원과 연계가 필요함. 등·하교 지원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인력확보를 위하여 공공근로 연계 및 어르신 인력지원을 검토하고 있

으나 적합한 인력확보에 애로가 있는 상황임

- 지역아동센터는 돌봄 수요보다 공급자에 기반한 기관 설치가 이루어짐으로써 개소 수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돌봄 필요 아동의 접근성이 높지 않으며 개인이나 종교단체의 운영 비율이 높아 체계적 관리감독이 어려움. 저소득층 아동 중심의 돌봄시설이라는 낙인감이 있지만 학교밖 마을에서 아동을 돌보는 기능을 충분히 해 온 것으로 평가됨(김진석 외, 2018)
- 대구시의 경우 2021년 이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의 긴급, 단시간 돌봄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틈새돌봄’ 사업을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음

□ 다함께돌봄센터

- 보건복지부 주관 다함께돌봄센터는 학교밖 돌봄시설 확충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해 시작되었으며 이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설치·운영됨
-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비교적 최근에 시행되는 공적 돌봄서비스로 지역사회 중심으로 아동 돌봄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 돌봄이 필요한 만6세~12세(초등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과 무관하며 이용료는 월 10만 원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함. 지방자치단체(센터별)는 지역 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정원(상시)은 시설면적 기준(아동 1인당 최소 3.3㎡)을 고려하여 산정함
-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기반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지역의 돌봄 수요 및 상황에 알맞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기존의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대부분 저소득 취약계층의 아동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 맞벌이 가구의 아동은 공적돌봄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임. 다함께돌봄센터는 취약계층이 아닌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보편주의적 복지서비스의 특성을 가짐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는 공공시설, 아파트 등 접근성이 높고 안전한 공간이면 리모델링 등을 거쳐 운영할 수 있음. 온종일 돌봄정책으로 마을돌봄의 확대로 시작된 다함께돌봄센터는 특히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의무설치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마을돌봄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도 있다는 기대도 있음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청소년아카데미는 청소년기본법을 근거로 2005년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을 기반으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 4학년 ~ 중등 3학년)의 자립역량을 개발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
- 방과 후 학습지원, 전문 체험활동, 학습 프로그램, 생활 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관별 차이가 있으나 초등학생, 중학생 기준으로 30~40명 정원을 기준으로 함. 다양한 프로그램 및 안전관리와 평가 등 서비스의 질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나 접근성 및 수요에 대한 대응력은 낮음(신향희, 2022: 49)
- 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 수련시설,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관할 공공시설, 민간운영시설 등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일수에 따라 일반형과 주말형으로, 일반형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기본지원형, 농산어촌형, 장애형, 다문화형, 인원축소형으로 구분됨

□ 공동육아나눔터

- 공동육아나눔터는 아동돌봄지원법에 근거, 가족돌봄사업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운영됨

-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가 영유아를 동반하여 같은 공간을 사용하므로 취학 후 아동돌봄에는 한계가 있음(김진석 외, 2018). 하지만 부모의 품앗이 활동으로 신뢰관계 형성이 가능하며 초등학교 진학 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시설 중심의 표준화된 돌봄서비스의 모델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신향희, 2022: 50)

□ 아이돌봄지원사업

-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하여, 아동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 내 개별 돌봄서비스임
- 아이돌봄지원사업은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제, 영아종일제 서비스로 진행되며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 비용의 차이가 있음.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양육 공백에 따른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하는 서비스로 초등학생의 경우 1회 2시간 시간제 돌봄이 가능함
- 이상에서 살펴본 아동돌봄정책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II.4> 아동돌봄정책 현황

구분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주관부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추진 시기		2004	2004	2017	2005
근거법		초중등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청소년기본법
운영대상		초1~2학년에서 전학년으로 확대	만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만 6세~12세 초등학생	초등4학년~중학교 3학년
재원		국가보조금 지방교부금	국가보조금 지방비	국가보조금 지방비	국가보조금 지방비
운영 대상 및 형태		맞벌이가정 중심 상시 돌봄	취약계층 중심 상시돌봄	맞벌이가정 중심 상시·일시 돌봄	취약계층 중심 상시돌봄
운영시간	학기	방과 후 17시까지 (19시까지 탄력 운영)	주 5일 1일 8시간 상시운영(14시~19 시 필수운영시간)	주 5일 1일 8시간 상시운영(14시~19 시 필수운영시간)	주 5~6일 1일 4시수 (15시~22시까지 탄력운영)
	방학	자율 운영	필수운영시간 12시~17시	표준운영시간 9시~18시	여건에 따라 자율 운영

CHAPTER

03

대구시 아동돌봄서비스 현황

1. 인구 구성
2. 아동돌봄서비스 이용현황
3. 대구형 온종일돌봄
4. 대구형 늘봄학교
5. 대구시 아동돌봄 현장의 목소리

Ⅲ. 대구시 아동돌봄서비스¹⁰⁾ 현황

1. 인구 구성

- 대구시 전체인구는 2,446,144명이며, 초등학생은 121,485명으로 초등학생 인구는 전체 인구의 4.97%를 차지함. 이를 기초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Ⅲ.1> 기초자치단체별 인구 현황

행정구역	전체 인구(명)	초등학생 인구(명)	비율(%)
중구	77,262	4,395	5.69
동구	343,685	16,524	4.81
서구	172,879	5,173	2.99
남구	148,247	4,038	2.72
북구	444,923	21,716	4.89
수성구	425,987	22,749	5.34
달서구	568,481	28,997	5.10
달성군	264,680	17,893	6.76
계	2,446,144	121,485	4.97

출처: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통계(2022)

- 전체 인구 대비 초등학생 인구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전체인구 대비 6.76%를 차지하는 달성군이며 이어 중구, 수성구, 달서구, 북구, 동구, 서구, 남구 순으로 나타남
- 초등학생 인구가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달서구이며 가장 적은 곳은 남구로 나타남

10) 본 연구에서 '아동'은 초등학생령기를 범위로 하며, '돌봄'은 아동에 대한 돌봄을 중심으로 살펴봄

2. 아동돌봄서비스 이용현황

- 대구시 아동돌봄서비스 이용현황을 보면 주로 저학년이 이용하는 학교 내 돌봄서비스인 초등돌봄교실은 초등학생의 10%에 이르는 12,020명의 학생이 이용함. 대구시 초등돌봄교실은 225개 초등학교에서 총 590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어 한 학교에서 2~3개의 돌봄교실을 운영 중임을 알 수 있음. 이는 수적인 면에서 아동돌봄서비스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학교돌봄에 대한 학부모의 선호를 알 수 있음
- 오후돌봄 운영시간은 5시까지인 경우가 가장 많으며 (333교실, 64%), 6시까지 운영은 173교실(33%)이며, 4시 이전에 마치는 경우는 17교실(3%)로 나타남(2022년 4월 30일 기준, 대구광역시 교육청 내부자료)

<표 III.2> 아동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구분		참여자 수	개소 수	비고
교육부	방과후학교	66,594	233	학습 위주
	초등돌봄교실	12,020	227	1~2학년 79.4%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5,649	201	틈새돌봄 사업 120개소
	다함께돌봄센터	129	7	23년 11개소 추가 설치 예정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552	17	중등이용시설 제외
	공동육아나눔터	50,007	16	자체운영 1개소
	아이돌봄서비스	4,172	-	찾아가는 돌봄/일시 돌봄 다수

- 마을돌봄서비스로서 201개소에 이르는 지역아동센터는 5,649명의 학생이 이용하고 있으며 다함께 돌봄센터¹¹⁾는 7개소에 129명의 학생이 이

11)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들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민간 중심의 지역 맞춤형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임.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할 뿐만

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중학생을 제외한 초등학생 이용시설로 17개소가 있으며 552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동에 대한 상시돌봄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다함께 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자 현황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III.3> 기초자치단체별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구분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청소년 아카데미		계	
	개소 수	이용자 수	개소 수	이용자 수	개소 수	이용자 수	개소 수	이용자 수	이용자 수	비율
중구	9	360	5	145	-	-	1	40	545	12.4
동구	32	1,768	25	680	-	-	2	40	2,488	15.1
서구	17	566	33	972	-	-	2	80	1,618	31.3
남구	11	567	12	336	1	16	2	61	980	24.3
북구	40	2,299	45	1,210	-	-	2	60	3,569	16.4
수성구	33	1,635	17	471	4	90	2	80	2,276	10.0
달서구	55	2,797	32	901	2	23	3	81	3,802	13.1
달성군	32	2,073	32	934	-	-	3	110	3,117	17.4
계	229	12,065	201	5,649	7	129	17	552	18,395	

자료: 대구시 돌봄정책연구회 토론자료집, 대구광역시 부서별 사업자료집 등 참고해 작성함

아니라,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 돌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에 의해 운영됨. 대구시는 2023년 3월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개수도 적을 뿐 아니라 정원을 못 채우는 경우도 있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함

- 상시적인 돌봄서비스 이용현황을 보면 대구광역시 전체 이용자는 18,395명으로 이용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서구이며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수성구로 나타남
 - 서구의 이용자는 1,618명으로 초등학생의 31.3%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수성구는 2,276명으로 전체 아동의 10.0%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 이용시설을 보면 서구는 지역아동센터 개소 및 이용자 수가 많으며 수성구는 다함께돌봄센터가 많음
- 시간제 일시돌봄과 상시돌봄이 같이 이루어지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는 2,731 가정의 아동 4,172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1,257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음. 기초자치단체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및 돌봄 아동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Ⅲ.4> 기초자치단체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현황

구분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계
이용가정 수	96	339	110	144	541	503	549	449	2,731
참여아동 수	138	502	159	214	846	763	837	713	4,172

출처: 대구광역시 사업보고서 참조해 구성

- 공동육아나눔터는 현재 16개소가 있으며 보호자 포함한 연인원 50,007명이 이용하고 있음. 기초자치단체별 현황은 중구 1개소, 동구 1개소, 서구 1개소, 남구 2개소, 북구 3개소, 수성구 3개소, 달서구 3개소, 달성군 2개소로 나타남

3. 대구형 온종일돌봄

-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사업은 “지역혁신을 통한 온종일 돌봄 선도모델 구축, 초등단계 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함
-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 부처 간, 돌봄기관 간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초등돌봄 사업을 지역의 여건 및 돌봄 수요에 맞게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로 개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확산하고,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확대를 통해 온종일 돌봄 공급을 확대하고자 시도함
- 온종일돌봄의 정책 방향은 초등돌봄서비스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를 통한 국가 책임성 강화, 초등돌봄 대상 학생 수의 양적 확대, 초등 1~2학년 위주의 이용 대상을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 운영시간의 연장 등이며 이때 돌봄 정책은 학교 돌봄(초등돌봄교실)과 마을 돌봄(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으로 나누어 구성됨
- 대구시는 2022년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3년 3월 현재 기본계획, 정보시스템, 협의회 관련 추진사항은 두드러지지 않음

「대구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2022. 4.11제정) 주요내용

제1조(목적)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증진은 물론 돌봄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아이 키우기 안전한 도시 조성

제2조(정의)

1. "아동"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인 사람
2. "온종일 아동돌봄"(이하 "돌봄"이라 한다)이란 아동이 지역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교육 프로그램 등 일체의 활동
3. "온종일 아동돌봄시설"(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이란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공동체 형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마련과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 정책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제5조(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3년마다 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함

③ 시장은 돌봄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해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제6조(돌봄 사업) ① 시장과 교육감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1.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보육사업
2.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유아교육사업
3.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돌봄사업
4. 초등돌봄교실 사업
5.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6.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7. 「대구광역시 우리마을 교육나눔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

8. 그 밖에 돌봄 지원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시장은 지자체, 학교, 돌봄기관의 돌봄 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을 위해 대구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정보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돌봄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둠

- 대구형 온종일돌봄지원사업은 틈새돌봄 시범사업을 특징으로 함

□ 틈새돌봄 시범사업

- 대구시는 '2021년 대구광역시 아동정책 시행계획'으로 촘촘한 공적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대구형 방과 후 틈새돌봄 시범사업'(이하 '틈새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함
-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사업은 갑작스러운 이유로 돌봄 공백이 생길 때 일시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 돌봄 지원을 대구지역 내에 있는 기존의 아동 돌봄 인프라, 즉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하여 제공함
- 다른 공적 돌봄과 달리 가구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대구시에 거주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욕구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는 틈새돌봄 시범사업은 지역아동센터 대구지원단(이하 '대구지원단')에 운영위탁을 통해 추진하였으며 시범사업을 거쳐 현재 확대하여 추진중
- 2021년 1억원 예산으로 돌봄기관 40개소, 217명을 지원한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2022년 예산을 증액하여(4억원) 돌봄기관 120개소에서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2023년에도 1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였음

4. 대구형 늘봄학교

- 대구시교육청은 2023년 3월 2일부터 '대구형 늘봄학교'를 운영함.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3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자 하며 우선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직후 일찍 하교가 이뤄져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학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시범학교를 지정해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임
- 교육·돌봄 거점형 시범학교를 운영, 2025년 이후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대비한 모델을 마련할 방침
 - 대구시교육청이 설문조사를 통해 오후 8시까지 돌봄 희망을 조사한 결과 26.5%의 학부모가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돌봄 수요가 많은 학교를 공모해 새 학기부터 거점형 시범학교 4곳을 운영 중임
- 시범학교는 방과 후 돌봄시간이 오후 5시에서 8시까지 연장되고,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및 단일학교 중심의 운영체제를 교육청 중심으로 변경함으로써 지역단위 전담운영체제도 구축할 예정임
 - 시교육청은 4개교에 늘봄연구학교 운영비 2천만 원 및 저녁돌봄 전담사 1명씩 지원하고 저녁돌봄전담사는 12시에서 8시까지 근무함
- 지난 3월부터 각 지원청별 1개교씩 시범운영하고 있는 시범연구학교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Ⅲ.5> 대구시 교육·돌봄 거점형 시범연구학교

시범학교	담당 교육지원청	특징
서대구 초등학교	서부 교육지원청	전교생 147명(10학급), 맞벌이 가정 80% 이상, 다문화 학생 비율 53%로 높음.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 및 방과 후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 8개 학교 거점 예정
황금 초등학교	동부 교육지원청	전교생 760명(29학급)으로 전수조사 결과 돌봄교실 수요는 182명으로 나타남 돌봄교실에 대한 학부모들의 참여 요구가 많고,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및 황금동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잘 이뤄짐
대덕 초등학교	남부 교육지원청	전교생 228명(13학급) 중 오후 돌봄 인원은 49명 유휴교실과 특별실을 활용한 놀이 중심의 집중 지원 강좌(1학년 입학 초기)와 교과보충 교육 및 체험형 미래직업 탐색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한다는 계획
구지 초등학교	달성 교육지원청	전교생 513명(23학급) 중 맞벌이 가정 45%, 신입생 44.7%가 돌봄 교실을 신청함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 및 문화 예술적 인프라가 많이 부족함

- 시범학교의 중점 연구 과제는 입학 초기 에듀케어 집중 지원, 방과 후 연계형 틈새 돌봄 프로그램 무상 운영, 돌봄 유형의 다양화(오후 8시까지 돌봄교실 운영), 지역 연계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임

□ 서대구초등학교

- 다문화학생 비율이 50%를 넘으며 맞벌이 가정이 많아 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높으며 저녁돌봄 신청자가 10명으로 시범학교 중 가장 많음
- 10개국의 아이들이 통학하고 있으며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있어 학습 효과 낮음. 학교는 통상 교육과 보육의 기능을 하지만 보육의 기능이 더 보완되어야 할 상황임. 이에 학급편성 시 학생 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음
- 인근의 초등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허브 구축으로 새로운 모델 창출하고자 함
- 현안으로는 돌봄교실 바닥 보온재 설치, 저녁돌봄 시 외부강사나 지역 연계 방안 마련 등이 있으며 거점형 운영을 위한 인근학교 수요조사가 요구됨

<관련 사진>



□ 황금초등학교

- 학부모 면담을 통해 많은 학부모들이 돌봄교실을 원한다는 것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다수임을 파악하고 돌봄서비스 확장하고자 함
- 규모가 큰 학교는 시교육청 산하 행복한미래재단에서 강사채용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받음. 교사들은 학교가 8시까지 돌봄을 수행한다는 늘봄학교에 반대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제대로 해 보자는 뜻에서 늘봄학교 시범학교로 신청함
 - 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많으나 3월에 시작해서 원하는 학생 다 받지 못함. 늘봄학교에 180여 명이 신청했으나 다 수용하지 못함. 자격이 되는 아동은 방과 후 학교, 고학년은 수성구청소년수련원 활동으로 연계함
 - 현재 늘봄학교 110명, 저녁돌봄의 경우 15명이 신청하였으며 4명은 매일, 나머지 학생들은 수시로 이용함. 하교 후 다시 학교 들어와 저녁 돌봄 이용 가능하며 야간돌봄이 생겨 방과후 돌봄교실과 자연스럽게 연계됨

<관련 사진>



□ 대덕초등학교

- 수요조사 결과 아침돌봄 4명이 신청하여 기초학력튜터가 도서관에서 돌봄. 오후돌봄은 49명으로 돌봄전담사와 특기적성 강사가 돌보며(2실 1전담사), 저녁돌봄은 4명으로 돌봄전담사, 특기적성강사, 자원봉사자가 담당함
- 1학년 대상의 에듀케어는 13명으로 신청요건에 맞지 않더라도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 수용함
- 대명 11동 우리마을교육나눔추진협의체가 추진하는 사업, 남구청의 미래교육지구 사업, 대덕문화전당 한어울예술단 사업 등 지역사회와 연계함
- 현안으로 저녁돌봄 교실 바닥난방, 에듀케어 2학년까지 확대, 저녁돌봄 전교생 수요조사, 시청각실 활용 VR 수업 준비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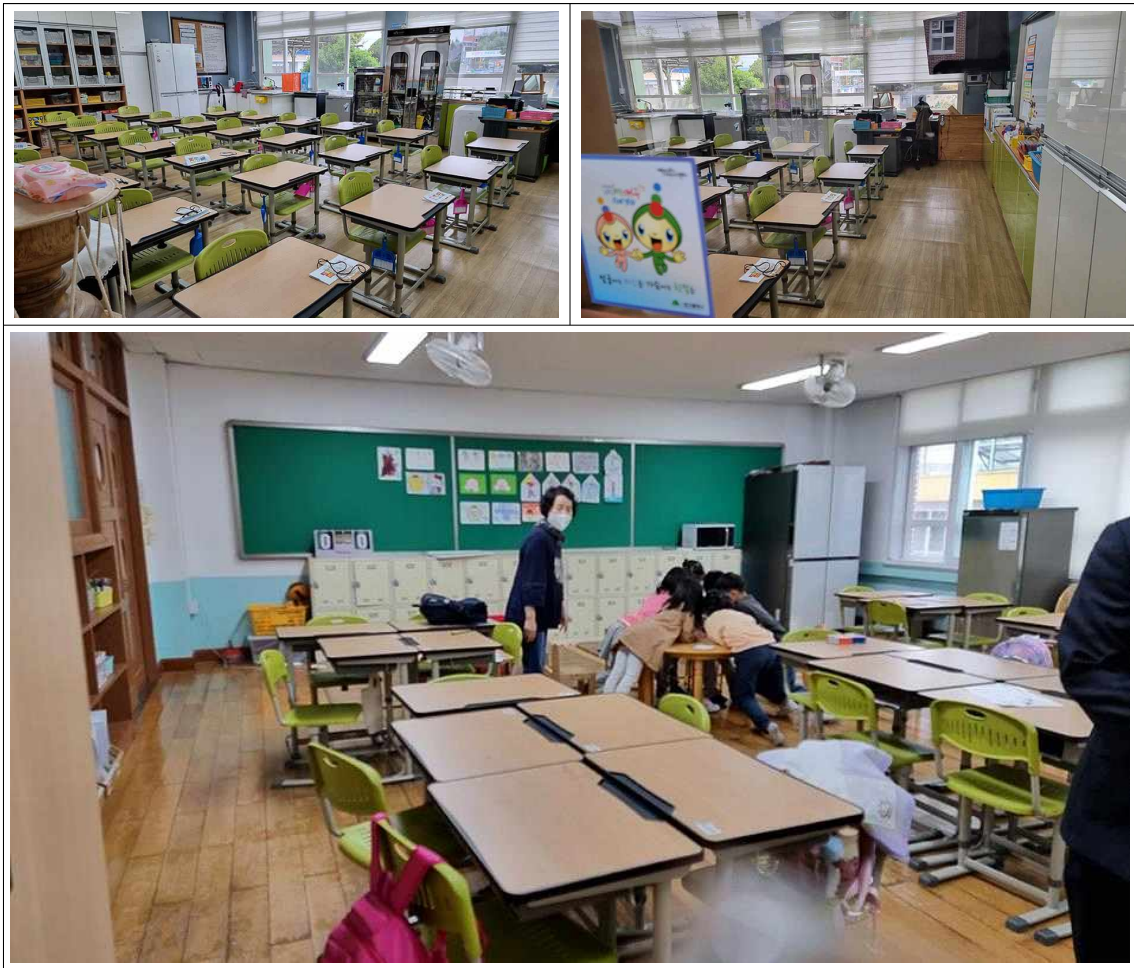
<관련 사진>



□ 구지초등학교

- 아침돌봄은 7시 50분~8시 30분으로 도서관을 활용할 예정이며 아직 시행하지 않음. 에듀케어는 1학년 23명, 저녁돌봄 6명, 오후돌봄 25명, 방과후연계형 19명으로 진행 중이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해 인근 센터 대상으로 특기적성 프로그램 조사 중임
- 교실을 활용하는 등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함. 저녁돌봄교실 환경개선이 필요하며 저녁돌봄을 위한 프로그램 고민 중임

<관련 사진>



5. 대구시 아동돌봄 현장의 목소리¹²⁾

□ 1차 토론회

- 1차 토론회는 “아동돌봄 현장으로부터 듣는다”는 주제로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 지역아동센터장, 대구광역시교육청 방과후학교 관계자 등이 참여하였으며 주요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토론회에서 대구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초등돌봄교실 운영의 한계점으로 돌봄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힘든 점, 교직원의 업무부담을 들고 있으며 아이들의 발달을 지원하는 돌봄정책의 방향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마을돌봄과의 연계를 강조함
 - 학교의 별도 공간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돌봄 특성상 공간확보가 핵심이나 학교 내 추가공간 확보가 제한적이며 돌봄수요가 많은 공동주택 밀집지역 등은 과밀학급, 과대학교로 교실이 부족하여 돌봄교실 추가 확충이 쉽지 않은 상황임
 - 돌봄업무로 인해 학교 본연의 정규교육과정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직원의 업무부담 증가로 돌봄업무 기피, 돌봄인력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학교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함
 - 아이가 만족하는, 아이가 행복한 돌봄정책인가 고민해야 함. 아이들이 10시간 이상 장시간 학교에 머무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우리 아이들의 삶의 질이나 교육·정서적 발달을 먼저 생각하는 돌봄정책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그럼에도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모두가 함께 돌봐야 한다고 생각함. 돌봄수요가 많고 교실이 부족한 지역은 초등돌봄교실 뿐만 아니라 마을돌봄인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안전하고 가까운 곳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학교돌봄은 오후 돌봄에 집중함으로써 정규교육과정 운영에 몰입하고 지자체 주관의 마을돌봄은 자택돌봄과 일시·긴급돌봄 등 틈새

12) 현장의 목소리는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연구단체 대구시돌봄정책연구회에서 2022년 11월 24일과 12월 21일 시행한 두 차례의 토론회 내용을 정리 분석하였음

돌봄을 분담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함

- 교육청과 구·군이 협업하고 있는 대구미래교육지구 사업과도 연계하여 안전하고 접근성이 높은 지역 내 공공시설을 활용한 마을돌봄을 활성화하여 학교 밖에서도 다양한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돌봄시설을 다양화해야 함
- 가장 중요한 ‘아이가 행복한 돌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여건과 환경이 달라져야 함.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국가, 지자체, 학교가 아이를 대신 봐주는 것도 좋지만, 부모가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즉 기업의 근로시간 탄력적 운영, 육아휴직 및 육아시간 확대, 아동양육 수당 확대 지급 등이 있음
- 다함께 돌봄센터 관계자는 과도한 서류 및 평가자료에 대한 문제제기 및 고학년이 되면 학원 위주, 저학년 위주로 구성되어 수준별 프로그램 진행이 필요하지만 종사자 인력이 부족, 운영비 지원의 현실화, 다함께 돌봄사업에 대한 홍보 등의 문제가 있음을 토로함
- 다함께 돌봄센터의 운영자는 학교 돌봄교실에 선정되지 않아 다함께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경우 무료로 이용하는 학교와 달리 이용료가 있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이용대상을 선별하지 않기에 오히려 외부 자원연계의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함. 더불어 부모의 욕심대로 따라가지 못해 우울증과 무기력을 보이는 아이, 또래들과 다른 가정형태로 폭력성이 드러나는 아이, 마음의 질병으로 충동성과 공격성이 나타나는 아이들, 주변 학원에서 받아주지 않는 아동들이 돌봄센터를 찾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강조함
- 지역아동센터 대표는 돌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아동센터 대구시 지원단에서 학원이나 보호자 귀가 등의 시간 동안 틈새시간을 이용하여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도록 해 온 틈새돌봄 사업을 소개함.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이용시설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 및 가정의 욕구를 보완하는 새로운 시도로서 틈새돌봄의 의의를 강조하며 기존 지역아동센터의 노하우로 지역내 돌봄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함

□ 2차 토론회

- 2차 토론회는 돌봄전담사, 장애특수돌봄전담사, 지역아동센터장 2인, 틈새돌봄지원단 관계자가 참여하였으며 주요 토론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는 타 지역은 모두 1실 1전담사 제도지만 대구는 그렇지 않아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의 심과 정서적 안정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함

...기존에는 한 반에 20-25명 정도 학생들이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며 돌봄의 범위가 확대되어 여러 개의 반이 개설되면서 한 인력이 75명을 돌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담사를 더 이상 채용하지 않았고, 돌봄 역할을 담당하는 특기 적성 강사가 들어오게 되었다. 학부모들의 민원이나 아이들에 대한 방치문제 등을 해결할 때는 75명의 학부모와 통화를 하고, 아이들마다 다른 귀가 시간, 방과 후 시간을 암기하며 지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정식 채용을 해주지 않았으며 2019년 3월에 파업을 하였다. 타 지역은 모두 1실 1전담사이나 대구만 그렇지 않다. 그나마 파업을 통해 한 전담사가 두 교실을 돌보는 시스템으로 변화하였다. 방학 중 비근무 또한 작년 예야 상시 전환으로 바뀌었다. 여전히 1실 1전담사가 도입되지 않았기에 교육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특기 적성 강사는 강사의 일에만 집중할 수 없고 돌봄 전담사의 역할을 해야 하며, 아동들은 적성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기도 한다. 돌봄 교실의 역할은 아이들의 심과 정서적 안정을 취하게 하는 것이지만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

- 장애특수돌봄전담사는 법적으로 한 학교에 한 명을 지원인력으로 배치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반에 한 명이 필요한 실정임을 토로하며 졸업 후 돌봄 받기 힘든 상황을 염려함

...행정실 무기직으로 돌봄 전담사 역할을 하고 있어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며, 점심 지원과 학습 지원 등의 요청이 들어올 경우 지원을 간다.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에는 한 사람이 19-20명의 학생들을 돌보았다. 하지만 학생들의 돌발행동

은 심하고 지원인력이 부족하여 교육청에 건의해 한 인력이 담당하여야 하는 학생 수를 줄였다. 현재는 법적으로 한 학교에 한 명을 지원인력으로 배치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반에 한 명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졸업을 하면 맡겨질 곳이 없어 학부모들의 걱정이 크다. 주간보호센터이나 치료실 같은 곳에 학생들이 맡겨지기도 하지만 주로 장애의 정도가 약한 학생들에 한해서다.

- 지역아동센터장 1은 틈새돌봄사업을 통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극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들어오고자 하는 인원은 매우 많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에 들어오기 위한 소득 기준이 있기에 모두가 들어올 수는 없다. 이들의 비율에 대한 기준이 있어 TO가 있어도 들어오지 못해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나마 틈새 돌봄 사업이 도입되면서 만족도가 매우 높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틈새 돌봄 서비스는 기존에 지역아동센터가 지니는 부정적인 시선을 극복할 수 있다. 가난해서, 불우해서 다니는 곳이 아닌 필요에 의해 다니는 곳이 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들의 출석도 맞추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받아야하는 교육이 있지만 틈새돌봄은 그런 것이 없고 필요할 때마다 올 수 있기에 아동들의 만족도도 높다. 매우 좋은 서비스지만 돌봄 활동비는 정해져 있어 최초 2시간은 3천 원 밖에 책정되지 않는다. 또 면적에 대한 제한점이 있어 동시간대에 건물 평수 이상의 아동들을 수용할 수 없고 다른 아동이 들어오고 싶어도 기존 아동을 강제 퇴소 조치할 수는 없다.

- 지역아동센터장 2는 코로나팬데믹 시기 돌봄공백을 메웠던 사례를 소개하며 경계성 장애를 지닌 아동들이 늘어남에 따라 전문인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코로나로 인한 돌봄의 공백을 지역아동센터가 채웠다. 온라인 학습 지원을 돕기도 하고, 부모님이 출근하고 학교를 못가던 시기에는 도시락을 배달하기도 했다. 2021년 하반기부터는 틈새 돌봄 사업을 시작하였다. 틈새 돌봄의 가장 큰 이점은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을 보는 부정적인 시선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이다. 또한 부모의 경제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을 소중히 대하는 보편적 복지의 개념이 실현되었다. 아동들이 늘어나며 아동 상담, 부모 상담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고 지역아동센터의 활동 범위가 넓어졌다. 그뿐만 아니라, 틈새 돌봄 사업으로 인한 운영비가 늘어 종사자들에게도 수당을 줄 수 있고 복지를 함에 있어도 여유가 생겼다. 아쉬운 점으로는 돌봄 인력이 29명 아이들을 기준으로 2명 밖에 없어 사회복지무원, 자원봉사자가 없을 때 어려움이 크다. 또, 경계성 장애를 지닌 아동들을 교육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법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이 늘기를 바란다. 덧붙여, 방학 때는 아동들이 센터에 있는 시간이 길기에 프로그램비를 증액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지역아동센터가 거리가 있을 경우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원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

- 틈새돌봄지원단 관계자는 맞벌이가 아니라 구직이나 배움단계에 있는 학부모도 쉽게 돌봄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음을 소개하며 학교와의 연계를 통하여 보다 안정적인 돌봄환경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함

틈새돌봄 사업은 2021년에 시범적으로 예산 1억 원으로 40개 정도의 센터에서 실시되었다. 감사하게도 돌봄 사업에 대한 반응이 좋아 2022년에는 120개 센터에 예산 4억 원이 투입 되어 실행되었다. 한 아이당 최소 2시간은 3,000원, 1시간이 추가될 때마다 1,500원씩 부가되는데 최대 6시간이 제한이다. 방학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와서 약속시간을 지켜 떠나지 않으니 센터에서는 가라고 말하지 못하고 제도적으로는 측정된 비용까지밖에 드릴 수가 없기에 아무리 많은 시간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제 보호 비용까지만 지출이 가능하다.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이유 중 하나는 지역아동센터나 돌봄 교실을 이용 할 때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직을 원하시거나 이제 일을 이제 배우러 다니시는 입장에서 어떤 서류가 제대로 증빙이 되지 않으면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는데 돌봄 서비스와 같은 경우에는 큰 제한이 없이 당일 신청해서 바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돌봄 사

업의 개선점으로는 인력 문제가 있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 차량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부모들이 많은데 센터에 차량이 있다고 해도 운전자와 동승자 두 명이 동행해야 하기 때문에 센터에 돌봄 인력이 부족할 시에는 등하원 지원이 어렵다. 또,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대부분 저학년 아동이고 진정한 돌봄을 위해서는 한글 교육 등으로 일대일 지원을 해주고 싶는데 그러기엔 인력이 부족하다. 덧붙여, 이 사업을 함에 있어 비협조적인 교장선생님들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와 연계가 어렵다. 학교와 연계를 하면 학교와 인접해있는 지역 아동센터의 경우 학교의 운동장 이용 등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지원단의 입장에 전국적으로 돌봄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최근에는 타지역에서 돌봄사업에 관한 매뉴얼, 계획서나 등을 보고 싶다고 문의가 많이 들어왔다. 이제는 이 사업을 좀 특화시켜서 저희 대구만의 브랜드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보아야 할 것 같다

□ 이상에서 대구시 돌봄서비스 운영자 및 종사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하면 다섯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먼저 대구시는 틈새돌봄사업이라는 대구형 돌봄사업을 코로나팬데믹 기간에 효과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이를 수행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오랜 돌봄서비스의 노하우를 살려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수행하였으며, 사업 수행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수그러들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둘째, 대구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1명의 전담사가 2개의 반을 관리하는 2실 1전담사 제도를 두고 있어 전담인력 활용방안이 보완되어야 함
- 셋째, 돌봄의 패러다임이 개인에서 공공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적실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상생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임
- 넷째, 향후 코로나팬데믹 시기를 어렵게 견뎌낸 아동들의 정서적 불안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아동들에 대한 돌봄이 보다 촘촘하게 설계되어야 함

- 마지막으로 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돌봄전담사의 전문성 제고로 안정적이며 탄력적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야 함

CHAPTER

04

아동돌봄 선진지 사례

1. 경상남도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2. 서울시 ‘중구형 초등돌봄교실’
3. 서울시 도봉구 ‘지역연계 방과후학교’

IV. 아동돌봄 선진지 사례

1. 경상남도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 경상남도 거점통합센터 ‘늘봄’은 전국 최초의 교육청 주관 거점통합돌봄센터로 2021년 3월부터 저녁 20시까지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교실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동시에 수행함
 - ‘늘봄’은 늘 돌본다, 늘 봄처럼 따뜻하다는 두 가지 의미이며 ‘거점’은 근처 인근 10개 학교를 수용한다는, ‘통합’은 돌봄교실만 아니라 방과후 학교도 같이 운영하며 놀이 활동과 정서 지원도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
- 창원시 명서초등학교 별관 전체를 리모델링하여 인근 10개 학교 학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1호점 개소 이후 2호점 성남점을 개소하였으며 현재 김해에 3호점 추진 중임
 - 대상자는 한 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그리고 차상위 계층으로 이용자 현황을 보면 방과후학교 650명, 평일돌봄 160명, 저녁돌봄 22명, 토요일돌봄 5명이 이용하고 있음
-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은 2023년 1월 9일 교육부가 발표한 ‘늘봄학교’의 모델로서 평일은 방과 후에 8시까지, 토요일 돌봄은 8시부터 13시까지 운영하며 방학 중에는 8시부터 20시까지 운영되며 수시돌봄, 틈새돌봄도 시행함
- 거점통합센터 설립 이후 기존 돌봄과의 차이점은 4시 30분까지 운영되던 돌봄시간이 저녁 8시까지 연장 운영되었으며 기존의 1~2학년 위주에서 3~4학년도 수용하는 등 보다 많은 학생들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점, 맞춤형 공간에서 신체 활동과 정서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급식과 간식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의 성과는 무엇보다 거점통합돌봄모델을 창출

했다는데 있음. 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한 돌봄공백 해소, 우수 프로그램을 통한 전인적 성장 지원, 창의적인 공간 혁신 등의 성과는 통합거점 센터의 모델이 됨

-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총 17명으로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IV.1>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인적 구성

센터과장(겸임)	
장학사 1	돌봄전담사 6
주무관 1	자원봉사자 3
사무행정원 1	안전지킴이 1
사회복부요원 1	청소인력 1

-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의 시설은 돌봄교실 6실, 방과후 프로그램실 8실, 놀이실 4실, 안내실 1실과 준비실 2, 상담(보건)실 1, 사무실 1실로 구성됨

<관련 사진>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 교육감의 교육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새로운 모델 창출의 주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함
- 아동에 대한 교육기능과 보육기능의 분리보다는 교육과 보육을 함께 수행할 때 돌봄의 효과가 커짐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감과 단체장의 협업이 통합돌봄을 가능하게 함
- 원도심의 비어가는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등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돌봄 효과를 극대화함

2. 서울시 ‘중구형 초등돌봄교실’

□ 모든아이 돌봄센터

- 서울시 중구청은 수요에 대응한 빈틈없는 돌봄체계 구축, 비용부담 없는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9년부터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대상으로 돌봄사업을 추진함¹³⁾
- 학부모 수요조사 결과 돌봄 공간으로 학교를 선호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본연의 교육업무에 전념하지 못하는데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므로 학교는 교육을, 지자체는 돌봄을 책임지는 새로운 유형의 공교육 지원 방식을 도입함
- 돌봄서비스의 새로운 운영주체로서 구청은 계획 수립, 인력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당하고 시설관리공단은 돌봄인력 운용, 시설 관리, 안전관리, 급간식 운영 등의 역할을 담당함
 - 구청에서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계약, 강사를 센터로 파견하지만 각 센터는 센터별 고유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하기도 함
 - 돌봄인력 운용에 있어 교육청 소속의 돌봄전담사 고용을 승계하고 2명씩 배치하여 근무환경을 업그레이드 함
- 학교 안(초등돌봄교실: 돌봄 전담사가 초등학교 내 마련된 전용교실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학교 밖(우리동네키움센터: 서울시에서 조성, 지원하는 방과 후 아동돌봄센터로 지역사회 돌봄 기관과의 연계,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 발굴 지원을 수행하는 공적 돌봄 기관)공간에서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함
- 운영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방과후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방학 중에도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이며 돌봄 희망학생 전원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원 초과 시 1~3학년 중 한부모, 저소득, 맞벌이 가정 우선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함

13) 당시 맞벌이가정 초등학생 2,666명 중 공적돌봄기관 수용인원은 890명, 33%에 지나지 않아 수용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음

- 아이들이 있든 없든 근무시간을 원칙적으로 8시까지 철저히 지킴. 초기에는 학부모가 의구심을 가지고 내 아이를 빨리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8시까지 서비스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신뢰하게 됨
 - 센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균치로 봤을 때 야간 돌봄아동은 전체 정원의 20% 정도임
 - 출장이라든가 입원을 하는 등 아이들을 갑작스럽게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한 달에 5회 내에서 임시돌봄을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음
 - 저녁 식사 신청 시 방과 후에 학원 갔다가 다시 학교에 와서 밥 먹고 집으로 가기도 함
- 급식 단가는 5천 원 정도며 음식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학교는 비과세지만 구청이 운영하는 경우 과세라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아짐
 - 서울시 중구청의 초등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IV.1> 돌봄체계 추진과정

<p>교육청과의 협의 및 학교장 의견 수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구돌봄협의회 구성 → 돌봄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타당성검토 용역 → 구청과 교육지원청 그리고 초등학교 간 업무협약식 →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 지역자원과 연계한 협력체계로 지역전문가로서 ‘중구 모든아이 돌봄협의회’, ‘돌봄프로그램 거버넌스 워킹그룹’ 운영 등이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와의 상생·협력관계 도모를 위해 간담회를 통한 현장 의견수렴 및 지역아동센터의 일반아동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함

「서울특별시 중구 초등학교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제4조(돌봄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초등학교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

제5조(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

제7조(돌봄의 우선 제공) 우선적으로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

1.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적으로 방과 후 돌봄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지역돌봄협의회 설치)

제18조(돌봄 시설 관계자의 교육 훈련)

<관련 사진>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 지방자치단체장의 돌봄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와 이에 따르는 예산 확보가 사업의 실행요소로서 가장 중요함
- 고용승계를 통한 인력의 안정적 활용으로 제도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함
- 초기에 계획했던 일정한 돌봄시간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지역사회, 특히 학부모의 신뢰를 확보함

3. 서울시 도봉구 ‘지역연계 방과후학교’

□ 마을과 함께하는 도봉형 방과후학교¹⁴⁾

- 학교 내에서 운영하던 방과후학교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최초의 사례로 2017년 4개 학교를 시작으로 2022년 16개 초등학교가 참여하여 방과후학교를 운영함
- 초등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도봉방과후활동운영센터에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하는 최초의 방과후 돌봄이면서 지역 교육자원이 함께하는 교육 거버넌스를 실현함
 - 16개 공립초등학교 참여
 - 200여개 프로그램, 100여 명의 주민이 마을교사로 활동하며 마을학교 운영
 - 도봉형 마을방과후활동은 유네스코 ESD인증 프로그램
- 교육청 소속의 각급학교가 운영하던 방과후학교를 지자체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학교는 정규교육과정과 학생생활지도에 전념하고 도봉구와 지역사회는 특기적성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교육 지원 모델(최혜영, 2020: 4)

14) 방과후학교란 방과후,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중 사적인 영역을 제외한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교육 프로그램, 놀이 활동, 여가문화생활, 자기주도적 동아리 활동 등이 포함된 개념임

- 도봉형 마을방과후활동은 학교 안과 밖에서 이루어지며 이를 각각 도봉형 방과후학교, 도봉마을학교로 칭함. 도봉마을학교는 학교 안, 교실 안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보다 안전한 활동을 늘려야 한다는 의지가 만들어낸 사례로 시설 중심의 돌봄이 아니라 활동을 늘려서 학교 안이든 학교 밖이든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에 머물 수 있도록 함
-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와 구청의 역할분담을 통해 학교 업무 경감 및 학교별 담당 컨설턴트가 활동함. 학교와 구청의 역할분담은 다음과 같음

<표 IV.2> 학교와 구청의 역할 분담

학교	구청
방과후 운영 연간 계획안 기안 학교 운영위원회 상정 분기별 강사료 정산 후 구청으로 입금 자유수강권자 행정처리 현장 운영 관리(학교 방과 후 코디)	방과후 강좌 수요조사, 분기별 만족도 조사 강사 모집 및 면접 후 채용 학부모 안내용 가정통신문 작성 및 안내 방과후 강좌 수강신청(도봉배움e사이트) 월별 강사료 정산

□ 모두잇 센터

- ‘모두잇’은 도봉형 초등 방과후지원센터로 학교와 구청 그리고 교육청의 협약에 의해 만들어진 센터로 방과후학교와 틈새돌봄을 잇는 역할을 함
- 2023년 현재 도봉구 내 3개소가 운영 중이며 센터장, 방과후 코디, 돌봄코디로 구성되며 방과후 연계형 돌봄과 방과후 쉼터 역할을 함
 - 돌봄 교실에 가지 못하거나 학원 시간 맞추기 위해 비는 시간에 누구나 머무를 수 있는 곳으로 학교의 돌봄교실과는 다름

<표 IV.3> 모두잇 센터 인력 및 역할

센터장	방과후코디	돌봄코디
방과후학교 행정 방과후쉼터 기획 틈새돌봄 기획	방과후 쉼터 운영 강사 및 수강생 관리	틈새돌봄 학생관리 및 돌봄 식사 및 간식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및 틈새돌봄(아침, 저녁)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도봉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함

제2조(정의) “방과 후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외의 시간 동안의 아동의 보호 및 양육 등을 위해 필요한 제5조제2항 각 호의 지원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 보호 및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방과 후 돌봄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함

제5조(방과 후 돌봄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방과 후 돌봄의 제공 및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

1.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체육·자기계발 등 프로그램 활동 지원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지원
3. 방과 후 돌봄 관련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지원
4. 구의 방과 후 마을 활동 지원 및 마을 학교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교육 지원
5. 구의 도서관 등을 활용한 마을 독서 돌봄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9조(방과 후 돌봄 협의회의 설치 등)

제15조(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돌봄 시설 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제16조(보험 가입) 구청장은 돌봄 시설 및 방과 후 돌봄 이용 시 발생하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아동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험에 가입

제17조(방과 후 돌봄 인력의 교육 훈련) 구청장은 돌봄 시설의 종사자 등 돌봄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함

<관련 사진>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 돌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혁신 교육, 지속가능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아동돌봄의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데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함
- 마을의 다양한 물적·인적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서비스 시행 가능성을 보여줌

- 교육청과 학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생태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사례로서 교육과 돌봄의 경계를 넘나드는 지속가능한 발전사례임
- 사업에 대한 수혜자로서 학부모는 돌봄사업 운영 과정의 변화에 대한 체감도가 높지 않으므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돌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CHAPTER

05

학부모 FGI 분석 결과

1. 초등돌봄의 문제
2. 초등돌봄의 이용경험
3. 늘봄학교의 추진방향

V. 학부모 FGI 분석 결과

- 학부모 면접대상자는 대구광역시 내 거주하며 초등학교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역, 이용서비스를 고려하여 최종 22명의 면접대상자를 선정하였음
- FGI는 4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일정 및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

<표 V.1> 면접대상자 특성

FGI 진행	참여자	나이	근무시간	자녀 수/ 나이	주로 이용하는 돌봄
1차 3월 8일 18:30~20:10	아동센터 이용자1	41	11~20시	1명/ 10살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봄 이용자1	46	프리랜서	2명/ 12살 10살	아이돌봄서비스
	돌봄교실 이용자1	44	9~18시	2명/ 9살, 5살	돌봄교실
	방과후 이용자1	41	9~18시	1명/ 11살	방과후
	돌봄교실 이용자2	41	9~18시	2명/ 8살, 4살	돌봄교실
2차 3월 9일 18:30~20:20	아동센터 이용자3	44	9~18시	2명/ 13살, 10살	지역아동센터
	아동센터 이용자4	47	9~18시	3명/ 19살, 15살, 13살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이용자1	42	9~18시	3명/ 13살, 10살, 8살	다함께돌봄센터
	아동센터 이용자5	41	9~18시	1명/ 14살	지역아동센터
3차 3월 15일 10:00~12:10	방과후 이용자2	42	전업주부	2명/ 10살, 6개월	방과후수업
	방과후 이용자3	41	전업주부	2명/ 10살, 7살	방과후수업
	돌봄교실 이용자3	43	9~18시	2명/ 16살, 8살	돌봄교실
	방과후 이용자4	39	전업주부	2명/ 10살, 8살	방과후
	돌봄교실 이용자4	43	단시간근로	2명/ 10살 7살	돌봄교실

FGI 진행	참여자	나이	근무시간	자녀 수/ 나이	주로 이용하는 돌봄
4차 3월 16일 10:00~12:10	아동센터 이용자6	43	단시간근로	2명/ 13살, 10살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봄 이용자2	44	단시간근로	2명/ 10살, 9살	아이돌봄서비스
	돌봄교실 이용자5	42	단시간근로	3명/ 14살, 13살, 8살	돌봄교실
	돌봄교실 이용자6	44	전업주부	4명/ 14살, 12살, 11살, 8살	돌봄교실
	돌봄 미이용자1	39	전업주부	2명/ 10살, 9살	이용하지 않음
5차 3월 16일 13:00~14:20	돌봄센터 이용자2	45	9~18시	2명/ 14살, 10살	학교돌봄, 다함께돌봄센터
	방과후 이용자5	37	전업주부	2명/ 8살, 5살	어린이집, 방과후서비스
	방과후 이용자6	39	단시간근로	2명/ 13살, 10살	방과후수업

- 학부모에 대한 인터뷰 질문은 초등학교 입학 후의 돌봄 경험, 현재 이용하고 있는 주요한 돌봄서비스에 대한 의견, 자녀가 누리기를 원하는 돌봄서비스, 정부의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 대구시에 바라는 돌봄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었음
- 인터뷰 결과는 초등돌봄의 문제, 초등돌봄 이용경험, 늘봄학교의 추진 방향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 초등돌봄의 문제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에 따라 직면하게 되는 돌봄문제를 토로함. 초등학교가 일찍 마치게 되면서 늦어도 3~4시면 집에 오게 되고 또한 어리기 때문에 잠 시도 혼자 둘 수가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공적돌봄과 사교육으로도 해결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함. 학교는 입학 때부터 제대로 설명조차 없고, 학원을 보낸다고 해도 문제가 생기거나,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됨. 인터뷰 참여자 중 돌봄문제로 인해 퇴직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직접적으로

말한 참여자만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초등학교 입학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었음

- 돌봄서비스 이용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까다로운 이용조건 문제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이 많았음. 신청과정에서부터 각종 서류를 요구하고 있어 쉽게 이용하기 어려웠으며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맞벌이나 재직 중임을 서류로 증명해야 하는 부분인데 구직 중이거나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증빙이 안되어 이용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었음. 특히 돌봄서비스에 관한 정보들은 단편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부재하였음
- 돌봄시간과 학부모의 퇴근 시간의 불일치, 이동문제, 아이들의 소재확인 요청과 더불어 돌봄종사자의 낮은 처우로 인한 돌봄이 질에 대한 우려 등을 알 수 있었음

○ 돌봄서비스 이용경험과 관련하여 먼저 초등돌봄교실 이용자들이 가장 만족하는 점은 학교 안의 공간이 안심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임.

- 하지만 학부모들은 형식적인 돌봄시간과 실제 돌봄을 이용하는 시간에 차이가 있음을 토로하며 그 이유에 대해 오래 아이를 맡길 경우 선생님이 싫은 기색을 내는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간도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래 있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음
- 돌봄의 질적 수준과 관련, 학부모들은 초등돌봄교실의 돌봄 수준이 질적으로 낮다고 느끼고 있었음. 실질적으로 그냥 출석 확인하고, 시간 맞추어서 내보내는 정도로 ‘돌봄이 없는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학교돌봄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돌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아이에 대한 죄책감까지 든다는 경우도 있음
- 초등돌봄교실을 이용 시 문제점 중 하나는 돌봄시간 동안 입출입이 자유롭지 않다는 문제였음. 돌봄교실은 한번 나가면 다시 들어올 수

없어 중간에 학원을 가는 경우 부모의 퇴근시간까지 돌봄공백이 발생 하는 문제가 있음

-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인 경우는 만족도가 높았음. 지역아동센터에서 인터뷰 참여자를 추천받았기 때문에 다소 편향이 있을 수 있으나 이용자들은 돌봄시간도 늦게까지 가능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 학습지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의 돌봄을 만족스럽게 느끼고 있었음
 - 하지만 돌봄시간과 운영방식은 지역아동센터마다 차이가 있었으며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거나 부적합한 돌봄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고 하였음. 이처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운영자, 즉 센터장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지적하였음
 - 지역아동센터의 가장 큰 문제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는 것이었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를 잘 모르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인식이 좋지 않다는 지적을 하는 경우가 많았음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간의 특별한 제약이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음. 하지만 긴급하게 아이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오히려 이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음.
- 다함께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만족감을 표현하였는데 특히 차량 운행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음. 돌봄의 질에 대해서는 불만족하는 목소리가 있었음.
- 청소년 아카데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처음에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늘봄학교의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바라는 돌봄은 따뜻하고 안전한 돌봄, 유연한 돌봄, 즐거운 돌봄이며 장기간 학교돌봄에 대한 우려, 돌봄공백에 대한 해소 기대, 인력확충 및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유연한 이용과 식사제공, 공간에 대한 요구 등이 있었음

1. 초등돌봄의 문제

□ 초등학교 입학과 돌봄문제

- 대부분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에 따라 직면하게 되는 돌봄문제를 토로함. 초등학교가 일찍 마치게 되면서 늦어도 3~4시면 집에 오게 되고 또한 어리기 때문에 잠시도 혼자 둘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함

엄마들이 보통 학교 들어갈 때 한번 또 타임이 오거든요. 타임이. 애들 일찍 마치니까 그 기간동안 그때는 많이들 쉬고 하더라고요. ... 사실 돌봄은 최대한 가장 큰 걱정 기준은 초 저학년이잖아요. (돌봄교실 이용자1)

초등 저학년은 어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10분이라도 공백이 생기면 걱정이 되고 마음을 놓을 수 없잖아요. 항상 불안하거든요. 무슨일이 생길까. 어떻게 될까.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아동센터 이용자2)

아이돌봄을 문의했을 때. 입학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아이를 맡길데가 없는 거예요.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 ... (아동센터 이용자4)

초등학교 저학년은 정말 일찍 마쳐요. 제가 모두 할 수 없어서 결국 부모님께 부탁드렸죠. 아이 하교만 부탁드렸어요. 초등 저학년은 학교가 너무 빨라서 어려움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방과후 이용자2)

초등학교 입학하면 저학년이 힘든 것은 집에 일찍 온다는 거지요. ... 입학하고 3월은 저는 무조건 일은 모두 빼고, 안 합니다. 프리랜스라서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이용자2)

1학년짜리는 보통 4시에 집에 오니까, 엄마는 3시 30분 전에는 무조건 집에 있어야 하니, 제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이러니 여자들이 애를 안 낳지요. 그렇다고 어린 애를 늦게까지 맡기는 것도 그렇고 ... (돌봄교실 이용자5)

저는, 학교 입학하면 시간이 제일 곤란했던 것 같아요. 유치원은 4시 30분에 하교하고 태권도 하나 가면, 6시까지 돌봄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학교는 저학년은 12시 30분에 하교하니 학원을 두 개나 가도, 3시에 마칩니다.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엄마들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어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방과후 이용자6)

- 하지만 이러한 막막한 상황은 공적돌봄과 사교육으로도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함. 학교는 입학 때부터 제대로 설명조차 없고, 학원을 보낸다고 해도 문제가 생기거나,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고 이야기 함

저는 학교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딱 입학하면 뭐든 설명이 자세히 있어야하는데, 돌봄에 대한 설명은 아무것도 없고, 신청서만 딱 넣어줘요. ... 너무 성의가 없어요. 부모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죠. 애를 잘 키우고 싶으면, 그래서 엄마들이 일을 그만 둘 수밖에 없어요. (방과후 이용자3)

아침등교 말고는 학원 보내서 학원차가 이동시켰는데, 학원에서 차량이 문제가 생기면 제가 해야 하는데, 직장 눈치도 많이 보였고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하루가 또 날아가버리고, 그래서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그만두니 돌봄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돈이 없어서 문제지만요. (아동센터 이용자5)

학원을 테트리스처럼 이용하고 있어요. 아이들 스케줄 딱 맞춰서 이동시켜야 해요. 어떤 요일은 작은 애 치료 있는 날은, 혼자서 안 되어서, 부모님 도움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직장을 다닐 수 없어요. (돌봄 미이용자1)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못 들어오게 해요. 단체생활이니 감기나 장염 등 걸리면 돌봄교실에 못 나오게 해요. 그러면 또 엄마는 회사에 말해서 쉬어야 해요. 이런 일이 몇 번 있으니, 여기저기 미안하고 해서 직장을 그만 두었습니다. (방과후 이용자6)

- 결국 직장을 다니는 상황에서는 아이 돌봄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직장을 포기하게 되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었음. 인터뷰 참여자 중 돌봄문제로 인해서 퇴직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직접적으로 말한 참여자만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초등학교 입학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었음

첫째 초등학교 들어가고 좀 적응하고 나면 일하려고 했는데, 여기 저기 다 알아봐도 아이 시간 맞춰서 뭘 할 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 돌봄교실도 아무리 늦어도 5시까지 무조건 데려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뭘 할 수가 없잖아요. 퇴근은 빨라도 6시는 되어야 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주변에 애를 봐 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일을 포기할 수밖에요. 다 그렇잖아요. (방과후 이용자4)

애들 처음 입학하면 정말 준비를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막내가 어리다보니, 첫째, 둘째 키울 때는 부모님 도움을 무조건 받았습니다. 연년생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1학년 입학하면 적응기간이라고 있는데, 학교를 9시 40분까지 오게 합니다.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부터 8시 40분까지 갑니다. 그러면 일하는 엄마들은 출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출근은 그 이후에 해야 하는데, 할 수 없잖아요. (돌봄교실 이용자5)

작은 아이가 돌봄교실 떨어지고, 저도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지금은 일을 줄이고 조금만 하고 있어요. 집에서 과외수업하고 있어요. (방과후 이용자6)

□ 초등돌봄 이용의 어려움

- 학부모들은 이용하려고 해도 까다로운 이용조건 문제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이 많았음. 신청과정에서부터 각종 서류를 요구하고 있어 쉽게 이용하기 어려웠다는 말이 많았음

아이돌봄을 이용했는데, 어린이집 가면서 아이돌봄을 이용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아이돌봄센터에 문의를 하고, 방학도 있고, 방학 때 안 봐 준다면, 계속 무슨 서류를 내라, 안된다. 계속 안된다는

소리만 들었어요. (이동센터 이용자4)

학교에 돌봄교실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서류를 만들어야 한다고. 돌봄교실 이용하려면 서류를 만들어야 해요. 저소득, 맞벌이, 한 부모, 다문화 등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일하는 엄마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저도 필요해서 미리 일하는 걸로 서류를 만들려고 만들었어요. ... 초3부터는 방과 후 수업을 연계해야 돌봄교실 이용도 가능합니다. (돌봄교실 이용자4)

돌봄교실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이용하려면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맞벌이라던가 그런거요. (방과후 이용자6)

-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맞벌이나 재직 중임을 서류로 증명해야 하는 부분인데 구직 중이거나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증빙이 안되어 이용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었음. 한 학부모는 전업주부를 선택한 것도 아이를 위한 희생인데 취업준비의 기회조차 허용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였음

제가 맞벌이로 아이돌봄서비스를 하니까. 엄마들이 구직활동을 하고 싶은 엄마들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그러면 나중에 직장을 얻게 될거잖아요. 파트타임이던지. 그러면 아이를 어디에 맡기고 싶은데, 그니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가 추천했는데 갔는데 전업주부라고 안 되고, 하니까 저한테 계속 묻는 거예요. ... 초등돌봄교실이나 아이돌봄서비스나 이런 걸 열어서 구직활동을 하거나 젊은 주부인 엄마들이 이용할 수 있게 열어두고. 그게 더 좋지,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돌봄 이용자1)

학교 돌봄교실은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어요. 알아는 봤는데,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서 해당이 안 되더라구요. ... 돌봄서비스가 많다고 듣기는 했는데, 알아보면 다 대상이 안된다 하더라구요. 사실은 학교 돌봄교실을 잠시라도 이용하고 싶은데, 그것도 맞벌이 아니고 자격이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아, 우리 집은 다 안 되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알아보지도 않고 있어요. (돌봄미이용자1)

회사에 다니지 않은 전업주부 엄마들한테는 정말 아무 지원이 없

어요. 전업주부들도 정말 할 말 많아요. 아이 때문에 희생하는 거
짧아요. 전업주부도 자기계발 시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취
업준비, 아이케어, 집안살림 등 다 같이 하려면 정말 힘들어요.
앞에 분 말씀처럼 요즘 애들이 조금만 크면 '왜 엄마는 돈 안 벌
어?'라고 합니다. 친구 누구 엄마는 이런 일을 하는데, 왜 엄마는
집에 있느냐고요. 그럴 때 정말 억울해요. (방과후 이용자4)

□ 돌봄에 대한 정보부족 문제

-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등 마을돌봄을 신청하게 된 계기는 현 수막이나 가정통신문과 같은 홍보로 알게된 경우가 있었고, 주변에 아는 친구나 학부모를 통해서 알게되는 경우가 있었음.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은 단편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부재하였음
- 또한 이러한 돌봄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약조건이 있는 경우가 많았음. 초등돌봄교실과 같은 경우 학기초에만 신청이 가능해서 중간에 필요할 때는 들어갈 수 없을뿐더러 처음부터 이용시간을 정해서 중간에 변경이 안되어 사정이 바뀌면 아예 이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음

□ 초등돌봄 돌봄시간의 문제

- 출근을 해야하는 경우 아이들이 일찍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학교등교시간이나 돌봄시간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음. 학교에서 아이들을 일찍 오지 말도록 한다던가, 방학 중에는 돌봄교실이 더 늦게 여는 문제 등이 있었음. 일찍 등교가 허용이 되어도 아이들이 혼자 있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음

맞벌이 부모의 자녀는 부모의 출근시간 때문에 일찍 학교를 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8살 저희 아이도 8시경에 학교에 등교합니다. 그런데 얼마전 학교 알림장에서 아이들을 일찍 등교시키지 말라는 내용의 문구를 보았습니다. 주변 맞벌이 부모들도 그런 내

용의 알림장을 보고 처음엔 당황스러웠고, 이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 아이가 일찍 등교하는 것을 금지시킬 것이 아니라, 아이가 일찍 등교했을 때는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지,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을 지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돌봄교실 이용자2)

입학하고 나서는, 방학이 제일 힘들어요. ... 돌봄교실이 9시에 문을 여니까. 돌봄을 이용해도, 출근할때는, 출근할 때 시간이 안맞을 때가 많이 있어요. (아동센터 이용자2)

문제가 생기는데, 언니하고 일찍 가니 교실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애가 교무실에서 열쇠를 받아서 열고 들어간답니다. 학교에서 일찍 등교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혹시나 애들 안전이 문제니까요. 그건 개선이 되어야 할 거 같아요. (돌봄교실 이용자5)

- 특히 방학은 학부모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시기로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학원을 더 다녀서 퇴근시간까지 버텨야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음

오죽하면 학교 방학 없애고 싶다고, 우리 쫓기대회 하자고 ... 방학이 되면 애들은 방과후를 가던지, 학원을 가던지, 더 뽕뽕이를 돌고 있는 거고, 일하는 엄마들은 애들을 어쩔 수 없어서. ... 저학년애들은 피아노, 태권도, 뭐 엄마올때까지 버텨야 하니까 학원을 더 많이 다녀요. 가방 메고 주렁주렁 그렇게 다녀야 되는데 ... (아동센터 이용자3)

- 학부모들의 퇴근시간 역시 일정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음. 출장이나 야근과 같이 별도의 상황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었고, 프리랜서라서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은 경우들도 있었음

가끔씩 회사에서 출장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시간도 사실 들쭉날쭉해요. 일찍 데리러 가서 시간을 맞출때도 있고, 늦어서 미안해서 전화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이 데리러 갈 때도 있구요. (아동센터 이용자2)

저는 사기업에 다니는데, 퇴근시간이 늦을때가 많아요.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했어요. (돌봄센터 이용자1)

저는 프리랜스로 일해서 일하는 시간이 딱 맞춰져 있지는 않아요. 일찍 마칠때도 있고 늦게 마칠때도 있어요. (방과후 이용자2)

- 또한 주말이나 휴일도 일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닌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문제도 지적되었음

저는 주말, 휴일 돌봄공백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긴급할 때가 평일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돌봄 미이용자1)

□ 아이들의 이동문제

- 돌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이동을 해야하는데 이 역시 돌봄에서 큰 문제를 차지하고 있었음.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을 선호하던가 돌봄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지리적 근접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따라서 돌봄서비스가 있더라도 이동거리가 있으면 이용하지 못하기도 하였음

학교근처나 집근처가 좋아요. 어리면 데리고 가주고 해야 하니까. 이제 크니까 혼자서 가고 하지만. 저학년은 힘들어요. (방과후 이용자1)

내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서 보내고 싶어도 너무 멀리 있으면 데려다주고 데리고 와야 하니까요. ... 저의 아이 학교랑 아동센터가 멀리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썼어요. 시간도 있고. 제가 일하다가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없으니까. (돌봄센터 이용자1)

혼자서 이동이 안 되잖아요. 저학년은 어떤 것이든 돌봄이든 통학, 이동이 제일 큰 문제예요. (아동센터 이용자2)

누가 청소년문화의집을 말해서 알아봤는데, 4학년부터 이용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차로 이용해야 하는 거리에 있어서

이용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돌봄 미이용자1)

- 한 참여자는 아이가 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교육까지 시켜야 했지만 아이를 잃어버릴 뻔한 위험을 감수해야하는 일이었음

애들은 훈련을 시켜서 버스타고 갈 수 있도록, 걸어서 가거나 버스 타는 경로, 나중에는 지상철 타고 가는 것, 다 훈련을 시켰어요. 버스 잘못타고 가서 00구에서 00구 000터널까지 타고 간 적도 있고 ... 애 둘이 잃어버릴뻔 한 적도 있어요. 버스 추격전 벌인 적도 있어요. (아동센터 이용자3)

-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교육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우선적인 선택기준은 차량운행이나 같은 건물인가와 같이 안전한 이동이 가능한가였음

아이가 돌봄교실 및 방과후교실 이용 후 사교육(학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장소까지 가려면 찾길을 건너야 합니다.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아이가 주위를 잘 살펴보고 길을 건너야 해서 혹시나 교통사고가 발생할까봐 우려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보니 학교에서 학원까지의 거리가 아무리 가까워도 안전상의 문제로 학원차량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가 다닐 학원을 알아보았을 때 학원차량 지원 되는 곳을 가장 먼저 알아보았고, 그 이후에 한 건물 안에서 다른 학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의 안전 및 돌봄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돌봄교실 이용자2)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통학부분인데, 한 건물에 있는 태권도 학원에 일부러 보내서 했던 거 하고, 태권도 하고, 태권도 학원이 7층이면 센터가 3층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불안할 정도죠. 1학년 때는 사실 다 불안하죠. (아동센터 이용자2)

- 이동과 더불어 문제가 되는 것은 아이들의 소재가 확인되는 것이었음. 학원의 경우에는 아이가 오고 가는 것이 학부모에게 통지되는 시스템

이 있지만 공적돌봄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결여되는 경우가 있어 입출입 통지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

학원에서는 아이가 출석을 하면 얼굴사진을 찍도록 하고 그것을 부모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아이의 안전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학교에도 도입이 되어 운영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학교에서 아이의 등하교를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시간만 체크되는데 사교육에서 이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면 더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봄교실 이용자2)

사립은 서비스 정신이 있는데, 공립은 교사라고, 공무원이다보니까, 좀 소통이나 그런 것이 훨씬 덜 되어서 ... 심지어는 애가 안와도 연락이 없어서 운영위원회에 이걸 특별안건으로 올리라고까지 얘기한적 있을 정도로 관심이 없다해서,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 이야기하면 나도 그렇다. 애가 죽어도 모르겠다(고 걱정하더라고요.) (아동센터 이용자2)

학교 출입 체크를 전자시스템으로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아, 지금 여기 있구나, 다시 학교 갔구나 안심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대부분 참여자 공감 표시) (돌봄교실 이용자6)

□ 돌봄 종사자의 처우 문제

- 또한 학부모들은 돌봄 종사자의 처우가 낮아서 이직이 잦고, 자원봉사자 등 다른 인력의 활용이 많은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였음. 이러한 문제는 결국 돌봄을 받는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음

가장 불편했던 관계는, 한 3년 정도 보냈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자주 바뀌는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자주 바뀌나 싶어있더니, 선생님들이 너무 박봉이에요. 그래서 자원봉사자 위주로 많이 들어가요. ... 센터장 월급듣고 깜짝 놀랐어요. ... 결국 센터장님은 그만두셨더라구요. ... 그 밑에 있는 선생님들은 더 자주 바뀌어

요. 1주일에 한번씩 바뀌던데요. (돌봄센터 이용자1)

센터 봉사자(멘토 대학생)가 자주 바뀌고 실력이 낮은 것이 좀 문제가 되기도 해요. ...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 급여가 정말 낮다고 합니다. 학교 밖의 자원을 활용한다면, 지금 학교 밖에 있는 돌봄 시설에 일하시는 분들의 일자리 질을 높이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동센터 이용자5)

- 돌봄 종사자의 처우가 낮은 문제는 결국 돌봄의 질 측면에서의 우려를 만들고 있었음. 적정한 급여와 안정된 일자리가 아니다보니까 실력있고 우수한 인력이 아이들의 돌봄을 담당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었음

요즘 돌봄교실 선생님 사실,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냥 기간제, 그냥 돌봄이나 음, 학부모님들 우선 하시기도 하고해서,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우선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퀄리티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단기간 근로자일뿐인데, 이분들이 이걸 할러니까. 음, 제대로된 급여를 주고 하지 않으면 퀄리티 있는 선생님을 하지 않으면 그냥 돌봄에서는 애들 그냥 보는 거 (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아동센터 이용자2)

2. 초등돌봄의 이용경험

□ 초등돌봄교실 이용과 장점

- 초등돌봄서비스 중에서 가장 많은 이용비중을 차지하는 초등돌봄교실은 일반적으로 학교의 가정통신문 등 안내장으로 알게 되어서 신청을 하여 이용을 하고 있었으며 대상자 우선순위가 있어서 신청한다고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지역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어요. ... 저는 다른 학교는 모르겠는데, 수월하게 됐어요. 후배들이나 00에 있는 애들은 돌봄에 떨어진대요. 경쟁률이 너무 세서, 그런 경우는 맞벌이가 애를 맡길데가 없어서 (고생한다고 하더라고요.) (돌봄교실 이용자1)

우리는 2학년까지만 돌봄교실 이용할 수 있어요. 돌봄교실 사용 교실이 제한되어서 학생을 더 받을 수 없다고 해요. 3학년도 받기는 하는데, 정원이 몇 명 안 되어서. (방과후 이용자6)

- 초등돌봄교실 이용자들이 가장 만족하는 점은 안심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점이었음. 이용자 중에는 초등돌봄 전담사 등 ‘선생님’들이 잘해주셔서, 친구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간식 등을 제공해주어서 등의 이유로 만족감을 표시하기도 하였고, 다른 서비스 이용자들은 믿을 수 있고, 학교 안의 공간을 이용한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기도 하였음

일단은 학교 마치고 시간이 남는 시간 동안 마음을 놓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는 거고. 저학년 1학년 때 선생님들이 챙겨서, 돌봄 선생님도, 오전에는 학교 선생님이 계시고, 오후에는 돌봄선생님이 계시니까 마음을 놓고 안정이 되고, 일단 지켜줄 선생님이 있으니까. 근데 그 선생님이 같잖아요. 맡겨도 안정적이고 (돌봄교실 이용자1)

초등돌봄교실은 초등돌봄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잠깐만 있다가 가도 되니 편하게 이용하라고 하셔서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아이 친구들 모두 신청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편하게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과 돌봄교실 선생님이 엄마와 같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해주셔서 모두 만족감이 큼니다. ... 초등돌봄교실은 아이가 또래 친구들과 다같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식도 신청하면 따로 제공되어서 아이가 허기를 채울 수 있어서 좋습니다. (돌봄교실 이용자2)

학교 안에서 운영은 장점이 많아요. 장단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믿을 수 있는 곳이고 (방과후 이용자1)

돌봄[교실을] 하면 제일 좋은 이점은, 학교에서 바로 이동이 없이 학교에서 바로 하는 거잖아요. 학교나 이런 측에서 보면 제일 좋은 점인데... (아동센터 이용자3)

□ 초등돌봄교실 이용시간의 문제

-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형식상으로는 늦게까지 이용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3~4시 정도까지밖에 이용이 안되는 문제가 나타났음.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 도움이 안되거나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 늦게까지 있는 경우 눈치가 보인다는 지적이 많았음

우선 제가 일을 늦게 마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아이가 처음에 초등돌봄을 했는데 저는 저녁까지 늦게까지 봐 주셨으면 하는데, 4시 반 5시 정도되면 끝나더라구요. (아동센터 이용자1)

돌봄교실도 아무리 늦어도 5시까지는 무조건 데려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뭘 할 수가 없잖아요. 퇴근은 빨라도 6시는 되어야 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주변에 애를 봐 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일을 포기할 수밖에요. (방과후 이용자4)

학원가기 전까지니까 3시나 2시 40분 정도, 4시 정도 시간에 따라서 요일별로 달라요. 끝나면 피아노, 미술 가요. ... 6시까지 있는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때까지 인원은 많지 않은 거 같아요. ... 애들이 없으니까 늦게까지 맡기기가 좀. 눈치보이는 것도 있고 ... (그래서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돌봄교실 이용자1)

돌봄교실이지만 학교에 오래 아이를 놔 두면 죄책감이 들 때도 있어요. 늦게까지 애들이 몇 없고 다들 일찍 가요. 어쩌다 늦게가면 우리 애만 있을때도 있어요. 그때는 선생님한테도 미안하고. (다들 공감) (방과후 이용자2)

돌봄교실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어도, 아이가 늦게까지 있으면 선생님 눈치 보입니다. 3~4시 되면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 아이만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눈치가 보입니다. 엄마들이 다 그래요. 그걸 아이들이 알 것 같아요. 애를 데리러 갔을 때, 엄마들이 미안해하는 거요. 엄마들이 눈치 안 보게 했으면 좋겠어요. (돌봄교실 이용자5)

- 학부모들은 이렇게 형식상 돌봄시간과 실제 돌봄시간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오래 아이를 맡길 경우 선생님이 싫은 기색을 내는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간도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래 있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음

처음 돌봄교실을 이용할 때는 5시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4시면 아이들이 모두 없어요. 아이도 혼자 있어야 하니 싫어하구요. 혼자 늦게까지 있으면 우리 아이만 소외감을 느낄 거잖아요. 사실 조금 늦게까지 있으면 돌봄 선생님이 싫어합니다. 표시합니다. 아이들이 모두 복적대는 시간 외에 혼자 있게 하지 않으려면 4시쯤 태권도를 보내야 합니다. 사실 돌봄교실도 눈치밥 아닌 눈치밥이 있어요. 엄마들 다 그렇게 말해요. 돌봄교실에 몇몇 안 남으면 눈치보이고 미안하다구요. 그런 건 학교가 더 심해요. (방과후 이용자6)

애들이 방과후하고 돌봄교실에 오래 있으면 애들이 힘들어 하는 거 맞아요. 앞에 말씀하신 분처럼 죄책감 든다는 생각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방과후 이용자3)

저의 애도 돌봄교실에서 오래 있기 싫어합니다. 돌봄교실 프로그램 수준이 문제인 거 같아요. 프로그램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그리고 1학년에서 3학년이 한 교실에 있어요. 한 공간에. 형들하고 놀면서 욕설을 먼저 배우기도 합니다. 공간 분리도 안되고, 아이들이 좁은 교실 어디서 놀아나 하는지요? 어찌보면 애들이 불쌍해요. 유치원은 그래도 휴식공간이 있어서 쉴 수 있고, 누울 수도 있어요. 그런 공간이 있지만, 학교는 책상에 앉아서 있어야 하잖아요. 뛰어다니면 안되고, 조용하고. 돌봄교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아이들이 거기도 오래있으면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돌봄교실도 3시쯤 되면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다들 학원차 타고 나갑니다. 학원으로. 5시까지 있을 수 있는데도 5시까지 있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 아이 혼자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 생각하면 일찍 데려갈 수밖에 없어요. (돌봄교실 이용자3)

□ 초등돌봄교실 돌봄의 질적 수준 문제

- 우선 학부모들은 초등돌봄교실의 돌봄 수준이 질적으로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음. 실질적으로 그냥 출석확인하고, 시간 맞추어서 내보내는 정도로 ‘돌봄이 없는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음.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학교돌봄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돌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아이에 대한 죄책감까지 들게 한다고 하기도 하였음

(초등돌봄교실은) 아동센터처럼 종합적으로 케어한다기 보다는, 왔니? 출석하고 프로그램 가라, 간식 주고, 가고, 이거에 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 (지역아동센터 이용자2)

돌봄교실은 아이들이 많아서 바글바글합니다. 처음 시작할때는 듯 대기 시장처럼 진짜 혼잡해요. 선생님 한 분으로 케어가 안 됩니다. 아이들을 방과 후 수업 보내고, 시간 챙겨서 학원 보내는 것이 다죠. (돌봄교실 이용자4)

저는 학부모에게 신뢰를 주는 돌봄이 되었으면 합니다. 돌봄교실에서 아이를 방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부모가 죄책감을 가질 것 같아요. 시간이 길어지면 그런 죄책감도 더 많아질 수 있어요. (방과후 이용자 3)

이용할 수 있어도 안 할 거 같아요. 듣기로는 학교 돌봄이 시간 떼우기 식으로 운영된다는 말이 많아요. (돌봄 미이용자1)

사실 돌봄교실에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애들은 학습지 문제만 풀고, 선생님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애들이 많으니 할 수 없지만요. (돌봄교실 이용자6)

돌봄교실이 사실은 아이들 이동 체크만 하는 것이 다 일 것 같아요. (방과후 이용자6)

- 이러한 문제는 아이 수에 비해 초등돌봄전담사의 수가 너무 적은 것을 원인으로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음. 현재 20명 당 1명의 선생님은 제대로 된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업무가 과중해서 선생님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으며 아이들도 지루하고 힘들 수밖에 없

다고 지적하기도 하였음

우선 선생님들이, 아이 인원수에 맞게끔 선생님들이 있어야 할 거 같아요. 애는 많은데 선생님 한 분인 것은 아닌 거 같아요. 이견 아닌 거 같아요. (아동센터 이용자1)

학교 돌봄환경이 좋지 않은 거 같아요. 돌봄교실에 선생님 한 명이 많은 아이들을 케어해야 하잖아요. 공부도 봐 줘야 하고, 문제 생기면 또 봐 줘야 하는데, 아무래도 케어가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 사실 집에서 애 한 명 보는 것도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 것 생각하면 돌봄선생님이 더 필요한 거 같아요.(방과후 이용자2)

선생님 힘든 거 맞아요. 공간은 좁고, 선생님 한 명당 애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 선생님이 덜 피곤해야 양질의 돌봄이 될 거 같아요. 학생 몇 명에 선생님 수를 줄여야 할 거 같아요. (방과후 이용자3)

사실 돌봄교실도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지루해하구요. 아이들 수준이 천차만별인데 선생님 한 분이 어떻게 다 케어하겠어요. 맞춤형이 안 되는 거죠. (돌봄교실 이용자5)

아이들이 많으면, 선생님도 어쩔 수 없잖아요. 돌봐야 하는 아이가 적으면 더 잘 돌볼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더 별난 아이들도 많고, 아이마다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맞춤형 돌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아이돌봄 이용자2)

- 초등돌봄교실에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선호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거나, 단조로워서 별로 유용하지 않거나, 원하는 학생들이 모두 들을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지적이 되었음. 그래서 초등돌봄교실은 아이들이 지루해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음

학교 돌봄은 한계가 있잖아요. 한자나 뭐 그런 거, 그런데 아동센터는 드럼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서요. (방과후 이용자1)

초등돌봄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무슨, 그 반에 가서 노는 거지

딱히 공부를 시키거나 하는 것은 없었거든요. 친구들이 학원을 간다고 가버리면 빨리 데리러 와 달라고 그래요. 지겨워서. (이동센터 이용자1)

어떤 애가 미술, 공예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무섭대요. 1학년이니까. 무섭대요. 애들이 선택이 없는 거 같고, 돌봄시간에 가만있기 지루하니까. 그런 스케줄 맞춰서, 하루는 오카리나, 미술, 하루는 공예하는데 그것도 싫어하는 애들도 많고 ... (돌봄교실 이용자 1)

돌봄교실이 애들한테 재미가 없는 거 같아요. 활발한 아이들은 그래도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는데, 활발하지 않은 아이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같이 섞이지 못하고 ... (방과후 이용자3)

돌봄교실에 가 보면 책도 많고, 교실 안도 잘 정리되어 있어요. 하지만 애들이니까 금방 지루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교실에 자주 변화가 있어야해요. 그런데 별로 변화가 없어요. 학기 내내 똑같으니까 애들이 금방 지루해하는 거 같아요. (돌봄교실 이용자6)

우리 학교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학교에서 추가 비용으로 특별선생님이 오셔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다 좋은데 학생 수가 많아서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은 한정되어 있어요. (방과후 이용자6)

-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면서 방과후 수업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방과후 수업도 원하는 것은 정작 듣기가 어렵거나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음

저희같은 경우는 방과후 수업에 영어를 신청하면 인원이 적어서 다 들어는 가요. 저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방과후 수업으로만 하고 있는데, 반이 좀 많은 데는 이렇게 튕기더라구요. 못 들어가더라구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보내더라구요. (아동센터 이용자1)

방과후는 교육수준이 낮아서 그만두었어요. 연속성도 없고 발전성이 없어요. 차량이동 가능한 학원 알아보고 있어요. 방과후는 애

들도 많고, 한자 같은 거 하니까. (돌봄교실 이용자4)

- 또한 돌봄교실의 공간문제를 지적하는 경우도 있었음. 아이들이 길게 보내야하는 시간에 비해서 돌봄공간이 넓거나 편안하지 않아서 부적합한 경우가 있다는 것임

아이들이 긴 시간을 있어야 한다면, 돌봄교실이 방처럼 좀 설 수 있게 되어 있고, 아이들 수에 비해 좀 넓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쏠리는 시간은 너무 바글바글합니다. (돌봄센터 이용자2)

대부분 돌봄교실은 일반교실보다 작은 공간에서 많은 아이들이 북적댁니다. 한번씩 보면, 닭장 같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불편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선 개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 공간을 확장해서 넓은 곳에서 놀 수 있도록 하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방과 후 이용자6)

□ 식사와 간식의 문제

- 초등돌봄교실에서는 아이들에게 간식을 제공해주는 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간식의 질과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음. 간식이 다양하지도 않고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다가 반출을 금지하다보니 먹기 싫어도 반강제적으로 먹어야 하는 상황을 지적하기도 하였음. 하지만 어떤 돌봄교실은 개별포장을 하여 반출을 허용하고 있다고 해 어쩔 수 없는 문제라기보다는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였음

저는 간식 있잖아요. 그것도 애들마다 다른데, 선생님이 간식을 밖으로 배출을 못하게 하니까 애들이 다 먹고 가야 한다고 하니까. 간식도 좀 그래요. 밖에 나가거나 집에 가서 먹으면 배탈이 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간식을 안 먹기에는 친구들이 먹으니까 안 먹을 수 없고. 좀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방과후 이용자1)

돌봄교실에서 간식을 제공합니다. 물론 돈을 내는데, 양이 적고 부실한 것 같아요. 애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방과후 이용자4)

저는 돌봄에서 간식도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애들이 모두 먹으니 안 먹을 수 없어요. 인스턴트를 주로 먹이는데, 간식 수준이 질이 낮아요. 또 무조건 먹기 싫어도 선생님이 다 먹도록, 다 먹어야 한다고 해요. 학교 밖으로 못 갖고 나가게 하거든요. (돌봄교실 이용자6)

저희는 간식도 개별소포장으로 해서 먹기 싫으면 집에 갖고 오기도 합니다. 개별포장이라 딱 정해진 간식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유동적인 것 같아요.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위생적이기도 하구요. (방과후 이용자6)

-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려면 도시락을 별도로 싸가야 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음. 맛벌이 가정이나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초등돌봄교실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건은 오히려 직장을 다니는 부모와 다자녀 부모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함

방학 때도 도시락을 싸 가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엄마들이 자기 직장생활 하면서 아침 챙겨 먹이고 아침에 후닥닥 챙겨 나오기도 바쁜데, 도시락 싸기도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도 굉장히 큰 거 같고 ... (아동센터 이용자3)

저는 애들 학교 보내면서 도시락 싸기가 제일 힘들었던 거 같아요. 선생님들이 알림장을 통해서 다자녀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방학 때도 돌봄교실 보내는데, 도시락 싸서 보내야 합니다. 도시락을 매일 3개씩 싸야 하니,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도시락 신선도도 떨어지는데, 위생이나 건강도 문제예요. (돌봄교실 이용자6)

□ 초등돌봄교실 입출입과 입학 후 공백문제

-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면서 가장 문제로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돌봄시간동안 입출입이 자유롭지 않다는 문제였음. 돌봄교실은 한번 나가면 다시 들어올 수 없게 되어있어 중간에 학원을 간다고 하면 부모

의 퇴근시간까지 돌봄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음. 그래서 부모의 퇴근시간에 학원시간을 맞춰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거나 입출입을 허용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음

문제는 돌봄교실은 나가면 다시 이용 못해요. 학교 밖을 나가면 다시 학교 안에 못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학원갔다 다시 돌봄교실에 못가고 그냥 집으로 가야해요. 그래서 엄마가 일하려면 애들 집에 오는 시간 맞추려고 돌봄교실과 학원시간을 맞춰야 해요. ... 학원차량 이용해서, 학원마치고 집에 부모가 없다면 돌봄교실로 와서 다시 머무르다가 부모가 데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돌봄교실 이용자4)

학원이 필요하면 학원에서 수업마치고 다시 학교 돌봄을 이용하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교문을 나가면 그날은 다시 교문을 못 들어오잖아요. 학교가 제일 안전하잖아요. 학원 마치고 다시 학교에 돌아와서 돌봄교실 이용하도록 하면 좋을 거 같아요. (방과후 이용자3)

돌봄교실 나가면 다시 못 들어가는 것도 문제예요. 좀 자유롭게 나갔다 들어갔다 했으면 좋겠어요. (돌봄교실 이용자6)

- 또한 초등돌봄교실 이용에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로 경험하는 것은 초등학교 입학 후 1~2주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었음.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도 있었는데 이는 방학 중 미리 운영 준비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로 보여 그동안 초등돌봄교실이 얼마나 행정편의적으로 운영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였음

아무래도 1학년 처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입학하고 나서 돌봄프로그램이 바로 있지가 않더라고요. ... 한 1주일 정도 지나면 시작했어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한 1주일 정도가 일찍 마치니까. 직장 다니는 저로서는 애를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맞춘다고 힘들었던 거 같아요. (돌봄교실 이용자1)

신청 및 시행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입학

식 또는 등교 첫날에 신청 받아서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봄교실 이용자2)

초등입학 후에 1~2주 후부터 돌봄이 시작되어서 얼마전에 일을 그만뒀어요. 1,2주 그 사이에, 중간중간 시간에 아이를 케어할 수 없었고.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돌봄교실 이용자3)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만족감

- 지역아동센터 현재 이용 중인 경우는 모두 아동센터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표현하였음. 지역아동센터에서 인터뷰 참여자를 추천받았기 때문에 다소 편향이 있을 수 있으나 이용자들은 돌봄시간도 늦게까지 가능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 학습지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의 돌봄을 만족스럽게 느끼고 있었음.

어쩔 수 없이 초등돌봄을 시작을 하긴 했는데, 나중에 아동센터라는 곳을 알게 되어서, 중간에 옮기게 됐거든요. 옮겼는 상황에서, 거기는 저녁식사까지 해결되고, 저녁 6시까지 돌봄이 가능하니까. 편안하게 애를 ... 돌봄하는 선생님이나 식사 제공하는 선생님이 따로 있다보니, 그런 문제가 좀 괜찮았던 거 같아요. ... 저는 완전 만족하고 있어서요 ...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그리고 수업마치고 갔을 때 저녁시간이 거의 4시반, 5시 정도에 먹는데 ... 그 사이에 가면 항상 문제집을 두장씩 풀게 해요. ...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숙제 같은 것도 봐주고. 수업도 하고, EBS 수업도 하고 (아동센터 이용자1)

돌봄교실은 사교육비가 거의 들지 않는 거. 그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일단 부모가, 학교가 할 수 있는게 한계가 있는데, 캠프도 가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부모가 해 줄 수 없는 것들이 할 수 있을 때(가도움이 됩니다.) (아동센터 이용자2)

저는 집 근처에 아동센터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직장 다니는 엄마들 걱정을 덜어 줄 수 있는 거 같아요. 지역아동센터를 셋 다, 큰애는 중1, 2정도까진 다녔고, 둘째도 중2인데 센터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가서 기타도 배우고. 어떻게 보면 저는 애를 셋 키우면서 음악을 다 학원을 다 돌리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바이올린도 배우고, 우쿨렐레도 배우고, 플룻도 배우고, 접해볼 수 있다는 게 ... 정말 큰 경험인 거 같아요. ... 평소에도 갈 수 있고 방학때도 갈 수 있어 좋아요. ... 이 돌봄이 어떻게 보면 더 믿을수 있고, 제가 안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보내는 거 같아요. (아동센터 이용자3)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 내가 일하는 시간에 혹시 아이가 다치면 엄마가 달려가야되잖아요. 선생님이 대신 해주시는 거. 그게 되게 좋더라구요. 감사하고. 그리고 공부도 조금 더 많이 봐주고. 하나하나 봐 주시더라구요. 좋더라구요. (아동센터 이용자4)

학기 중에는 방과 후에 가서 늦게까지 있고, 방학때는 좀 일찍 시작해서 일찍 마쳐요.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학원도 한 곳 다녀요. 큰애는 태권도 다니고, 작은애는 미술 다니고 있어요. 아동센터는 수년째 다니고 있어요. 만족하고 있어요. (아동센터 이용자 5)

아이들을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지역아동센터 확대가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식사도 제공하고, 공부도 하고, 자유롭게 이용도 할 수 있구요. 학교는 자유롭지 않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힘들어 할 것 같은데요. (방과후 이용자6)

- 가장 만족스러운 요소 중 하나는 돌봄시간이었는데 저녁까지도 돌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연장도 가능한 경우도 있었고, 학원 등 자유로운 입출입이 가능하다고 하였음.

아동센터 문은 9시부터 6시까지 열어 놓구요. 그 안에 아무 때나 가면 돼요. 학원을 가게 되면 학원갔다가 다시 가도 되고, 방학때는 점심을 주거든요. 점심을 먹고, 저녁은 집에서 먹고. ... 6시까지 봐 주시는데 제가 일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봐 주세요. 저같은 경우는 센터장님이 같은 건물에 살고 계셔서 일이 있으면 조

금 더 봐 주시기도 해요. (아동센터 이용자1)

아동센터 갔다가 평소는 7시쯤 집에 오고 8시쯤 오기도 합니다.
센터에서 저녁을 제공해요. 저녁을 줘서 좋아요. (아동센터 이용자5)

- 하지만 돌봄시간과 운영방식은 지역아동센터마다 차이가 있었음. 또한 운영시간에 따라 식사를 제공하는 방식도 지역아동센터마다 다른 경우가 있었음

아동센터도 일찍 안 열잖아요. 그래서 돌봄을 써야 하는 거예요.
... (아동센터 이용자4)

10시에 여는데, 방학때는 9시부터 열어요. 방학때는 점심제공하고 저녁 제공 안하고 (아동센터 이용자3)

아동센터마다 다른 거 같아요. 우리 애가 다니는 아동센터는 저녁을 제공해서, 제가 늘 점심 제공하면 안되는냐고 했는데 (아동센터 이용자4)

방학은 점심제공하는데 선생님이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 방학때는 9시부터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지만 점심제공 됐으니까 저녁제공 안되고 (아동센터 이용자3)

점심을 제공하니까 저녁은 간식을 챙겨주시더라고요. 배고프면 라면도 끓여주시고, 볶음밥도 해 주시고 저희는 ... 방학중에도 저녁을 주는 아동센터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달라가지고 (아동센터 이용자4)

-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만족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있었음. 요일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외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음

현재 같은 경우는 요일별로 있는데, 미술, 체육, 오카리나 같은 것도 있고, 체험도 있구요. 토요일 영화 같은 거 보러 갈때도 있고, 요리프로그램도 있고, 외부로 가서 요리하는 것, 딱 10회 하

는데요. 그것은 이번에 들어갔어요. 그런게 다 무료로 되니까 좋은 거 같아요. (아동센터 이용자1)

그 아동센터가 처음 생기다 보니, 2년동안 운영비 지원을 못 받고 이제 받고 됐어요. 원래 초기에는 못 받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부담이 있었는데, 몇 년 후 부터는 예산을 지원받았나 봐요. 예산이 지원되고 나서 운영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만족스러워요. (아동센터 이용자2)

센터에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상담, 동아리, 의회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많아요. 좋은 점도 많아요. (아동센터 이용자5)

- 또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 중심의 편안한 분위기에 대해서 만족하는 경우도 있었음.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자유롭게 지내고, 서로 도우면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분위기라는 점을 높게 평가하는 학부모들이 있었음

애네들은 무슨 운영위원회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애들이 내 집처럼 이용하고 있는 거 같아요. ... 저도 아동센터 한번씩 가보면, 애들이 너거 집이가? 카면서 할 정도로 냉장고 문 열어가지고, 셀프, 완전 셀프로, 너거 집이가? 막 먹냐? 그러면 선생님이 먹이라 그랬어요. ... 저도 직장다닐 때 아이들 걱정없이, 평소에도 보낼 수 있고, 방학때도 걱정없이 보낼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공간이 우리애들만 있는게 아니고, 다른 아이들도 함께 있고, 선생님과 한 공간 안에서 함께 생활하니까. 일단 애들도 너무 편안하게, 다 내집처럼 이용하는게 그게 너무 좋아요. (아동센터 이용자3)

저도 사실은 큰 애가 ADHD진단을 받아서, 온전한 직장을 다닐 수는 없어요. 애한테 신경써야 하거든요.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치료도 해야 하구요. 아동센터에서는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한 것 같아요. 큰 애들이 작은 애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서로서로 배우는 것 같아요. (아동센터 이용자5)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식과 격차문제

-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의 가장 큰 문제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는 것이었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를 잘 모르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인식이 좋지 않다는 지적을 하는 경우가 많았음

그래도 아직은 좀, 뭔가 인식도 그렇고. ... 지역아동센터를 모르는 엄마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인식도 별로 좋지 않아요. (방과 후 이용자3)

사실 지역아동센터 보내고 싶어요. 대상은 되어요. 다자녀라서. 관심은 있어요. 그런데 선입견이 좀 있어요.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동안 안 보냈어요. (돌봄교실 이용자6)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선입견이 있기도 하구요. (돌봄 미이용자1)

지역아동센터나 돌봄교실에 대한 인식개선 필요해요. 모르니까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돌봄 이용자2)

-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중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가 있었음. 지역아동센터가 일정 비율 이상을 돌봄 취약아동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보니까 오히려 지역아동센터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이용자에게 편견을 가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하였음

어떻게 보면 이제 주변의 시선이 지역아동센터 다니면 [한]부모가 정이나 조모가정 등 아이들 환경이 안 좋은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무조건, 뭐 모든 제약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 진짜 엄마아빠 다 계시고 해도, 진짜 엄마아빠 다 일을 하고 있으면, 애들은 허공에 뜨고, 공중에 뜨는 이 아이들이 돌봄이 필요한 애들이거든요. 모두가. 모든 아이들이 돌봄이 필요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렇게 걸고 저렇게 걸고 제약이 너무 많으니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선 자체가 이렇게 조금 힘든 아이들이 가는 거야 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아동센터 이용자3)

-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아동센터를 경험한 학부모 중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었음. 오히려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거나 부적합한 돌봄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고 하였음

전에 프리랜스로 일하면서 지역아동센터에 수업을 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절대 이런 곳에 아이를 보내지 않겠다 다짐했습니다. 애들이 욕설을 많이 하고, 고학년이면 정치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욕설 섞인 부모 말을 그대로 따라 하기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나쁜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선생님은 그런 상황을 전혀 케어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도 크게 개의치 않으신 것 같기도 했어요. (방과후 이용자2)

코로나때 틈새 돌봄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적 있어요. 1달 이용하고, 더 이용할 수 있는데, 중간에 그만두었습니다. 아이는 많은데, 선생님 수가 부족했습니다. 멘토 대학생이 아이들과 잘 놀아주기도 하는데, 멘토선생님은 너무 자주 바뀌고, 너무 자주 바뀌는 것이, 그것도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멘토선생님은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대학생이에요. 아직 어리기도 하고, 멘토 대학생이 아이들과 유튜브에서 하는 놀이(판매행위)도 한 것 같았어요. 뭘 사서 왔는데, 어이없었어요. 어리숙한 아이들 이용하는 것 같았어요. (방과후 이용자3)

- 이렇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역아동센터마다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음. 인터뷰 참여 학부모들도 지역아동센터는 센터장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지적하였음

제가 알기로 지역아동센터에 오래 다니는 아이들이 거의 없다고 들었어요. 3개월쯤 지나면 그만두는 경우 많아요. 아무래도 센터장 역량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요? (돌봄교실 이용자5)

괜찮은 아동센터도 있고, 아동센터마다 센터장님 마인드에 따라 다른 거 같아요. (방과후 이용자2)

아동센터는 원장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동센터 이용자5)

□ 아이돌봄서비스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간의 특별한 제약이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음. 그래서 저녁시간, 주말이나 공휴일, 방학 시간 등 돌봄공백이 많거나 다른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시간에 이용하고 있었음

사실 유치원때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했거든요. 아이돌봄서비스는, 저는 파트타임으로 프리랜스로 일하기 때문에 갑자기 돌봄공백이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새벽에 어딜 갈 수도 있고, 밤 늦게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돌봄서비스는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 아침일찍도 될 수 있고, 저녁늦게도 될 수 있고 ... 토요일도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는데, 공휴일은 비용이 두 배로 뛰긴 하는데 급하니까. 선생님이 365일 24시간, 선생님하고 시간만 맞추면 언제든지, 그게 가장 큰 장점이지요. (아이돌봄 이용자1)

입학하고 나서 오히려 아이돌봄을 이용하고 나서 좋더라구요. 선생님이 오는 아이돌봄을 이용하는데 그래서 1학년부터 3학년때까지 방학중이고 학기 중이고 아이돌봄선생님하고 같이 있었어요.
(아동센터 이용자4)

- 하지만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시간이 맞아야 한다는 제약사항이 있었음. 따라서 긴급하게 아이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오히려 이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음

선생님하고 날짜만 맞으면, 근데 갑자기 애가 아프거나 갑자기 학교를 안 가거나, 일찍 돌아오거나 하면 그때 공백이 생겨요. 급하게 연락해서 되면 괜찮은데, 안 될 때도 있어요. ... 이때까지는 그래도 선생님한테 어쨌든 와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것도 모니터링이 심해지면서, 이렇게 약간 선생님들이 유동적으로 운영하던

것이 불가해졌어요. (아이돌봄 이용자1)

- 또한 아이돌봄서비스는 전체 이용시간의 제약이 있기도 하였고, 식사나 간식 제공에 있어서 제한사항이 있기도 하였음. 서비스를 남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약사항이 더 엄격해지면서 완전히 준비된 음식만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되고 있었음

년 단위로 정해져 있어요. 조금씩 느는 것 같아요. 820시간인가 그랬는데, 지금 960시간인가 그래요. 조금 늘었어요. ... (아이돌봄서비스에서는) 식사 준비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준비해 놓은 것을 차려주시는 것은 되는데, 이게 점점 엄격해져서. 왜냐하면 아이돌봄선생님을 가사도우미처럼 부려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 처음에는 사과도 깎아주시고, 굴도 까 주시고, 간단한 요리도 데워도 주시고 하셨는데, 그런 걸 아이돌봄 선생님께서 문제제기했나봐요. 나중엔 점점 가스불을 켜는 것은 안되고, 과일도 깎아놓은 것은 먹여도 되고 준비 딱 해놓고 하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밖에 안돼요.) (아이돌봄 이용자1)

□ 다함께 돌봄센터와 청소년아카데미

- 다함께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만족감을 표현하였는데 특히 차량 운행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음.

첫째, 둘째는 돌봄센터에 다니는데 차량 운행을 해서 다니고 있어요. 차를 운행 안 하면 못 가요. 집 바로 근처가 아니면 이용하기 곤란하고 어려워요. ... 근데 그게 시나 국가 보조금이 없으면 절대 운행을 못하겠더라고요. ... 다함께 돌봄센터 안에 운영자금은 그게 있는 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고, 예산이 워낙 많은 품목을 차지하니까. 그것 때문에 또 센터 이용료도 올라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차량 픽업을 해주는 그 서비스가 특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용하면서 만족도는 아주 높았는데, 그게 없었더라면 결과론적으로 이용을 못했을 거예요. (돌봄센터 이용자1)

다함께 돌봄센터는 6시에 하교 차량 운행합니다. 시간이 좋은 거

같고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돌봄센터 이용자2)

- 하지만 돌봄의 질에 대해서는 불만족하는 목소리가 있었음. 인력비 지원기준 때문에 멘토 대학생이 너무 자주 바뀐다던가, 처음에는 좋았던 서비스들이 갈수록 지원이 줄어들면서 부담이 늘어나고, 질도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인력도 많이 쓰지도 않아요. 한명, 두명 쓰고 대학생 이런 애들 쓰면서, 다 국가 보조금으로 쓰더라구요. 6개월 보조금 나온다 하더라구요. ... 그 6개월 끝나면 어쩔 수 없이 계약이 만료되니까 내보내야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뽑아서 6개월. 애들이 좀 친해지려고 하면 나가고, 친해지려고 하면 나가고. 그게 좀 교육이 그래요. 이걸 좀 좋은데 같이 하고 싶어도, 애들 정 붙이면 나가야 되니까. (돌봄센터 이용자1)

아이들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데, 처음에는 모든 게 좋았어요. 여러 가지 지원도 많았어요. 시간이 갈수록 지원이 줄고, 추가 비용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 센터가 있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도움이 된 것은 맞아요. 그러나 불만도 조금 생기고 있어요. 초창기와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프로그램도 다양하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도 줄어들고, 비용은 늘어나구요. 두 명 보내는데 20만원 정도 들어요. 슬슬 비용이 부담돼요. 그 외에도 간식비는 별도로 내야 합니다. 초기에는 간식비 빼고는 거의 무료로 이용했거든요. 간식도 마음에 안 들어요. 센터에서 조리할 수는 없지만, 내는 간식비에 비해 제공되는 음식이 너무 열악해요. 짜여진 식단은 없고 그때그때 하는 것 같아요. 영양가 낮은 튀김 음식이 대부분이에요. (돌봄센터 이용자2)

- 청소년 아카데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처음에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청소년문화의집이 있는데, 초기에는 수업이 다양하고 모든 게 좋았어요. 그런데 점차 프로그램도 단조롭고, 수강인원이 적으면 폐

강도 하고, 점점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요. 그래도 문화의 집은 수업의 질도 그래도 좀 높고 수업료는 적어서 좋아요. 하지만 아이가 좋아하는 수업이 폐강이 되면 계속시키기 위해 학원을 또 보내야 합니다. (방과후 이용자4)

3. 늘봄학교의 추진방향

□ 따뜻하고 안전한 돌봄

- 앞선 초등돌봄의 문제와 돌봄서비스의 이용경험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학부모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원하는 것은 안전한 돌봄이었음.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초등돌봄교실을 선호하건, 학원을 선택할 때에도 차량운행 등이 최우선 사항이었음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아이 스스로도 학교생활에 적응해야 하고, 부모도 아이의 안전이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맞벌이 부모의 경우엔 아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해결해 줄 수 없는 한계점이 존재하며 그로 인해 불안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아이가 학교 안에서, 그리고 하굣길에서 안전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부모의 걱정과 우려 때문에 사적영역에서 등하원교도우미 사업이 생겨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돌봄교실 이용자2)

-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자신의 자녀처럼 돌볼 수 있는 따뜻한 돌봄을 원하는 목소리가 많았음. 부모처럼 자녀를 보살피주는 것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돌봄을 원하고 있었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서적 측면을 도와 줄 수 있는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 또래 아이나 다양한 선생님이나 그런 거 찾아보면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많았을 것 같은데, 정서적 측면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돌봄교실 이용자1)

□ 유연한 돌봄

- 돌봄을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유연한 돌봄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었음. 아이돌봄이 필요한 시간이 언제나 일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직장에 있다보니 교육갈 수도 있고, 회식이 있을 수 있고 진짜 중간중간에 한번씩 맡기고 싶은데 ...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학기) 초에 해야 들어갈 수 있고, 끝까지 해야하고, 그런 것들이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연계하고. 일시돌봄이 필요할 때는 이쪽 방향으로 접근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동센터 이용자1)

맞벌이 부모의 경우 보통 6시 이후에 귀가를 하면 7시 이후에나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공교육에서 아이를 그 시간까지 일시적으로 돌봄을 제공해줄 수 있으면 필요한 가정에서는 잘 이용할 수 있을 수 같습니다. 어린이집 시간연장 보육과 같이 초등돌봄에서도 필요한 가정에 한하여 제공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돌봄교실 이용자2)

- 하지만 돌봄서비스 이용시간에 제약이 많았음. 특히 초등돌봄교실의 경우에는 5시를 기준으로 저녁돌봄을 구분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5시까지 이용하는 것조차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녁돌봄을 이용하는 경우는 적을 수밖에 없었음
- 또한 초등돌봄교실은 입출입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돌봄시간 중간에 학원을 다녀오는 것은 불가능하고, 부모의 퇴근시간에 맞춰서 학원을 별도로 다녀야하는 문제도 있었음. 이처럼 돌봄서비스가 아이와 부모의 시간에 맞추어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돌봄서비스 시간에 아이와 부모가 맞춰야하는 것이 현실이었음

□ 즐거운 돌봄

- 학부모들은 또한 아이들이 즐거운 돌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많이 강조하였음. 초등돌봄교실이나 방과후 수업의 경우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해 아이들이 지루해한다는 지적이 많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었음

애들이 또 프로그램 있으면 다 들어야 하니까. 꼭 이 수업만 안 하고 다른 대안이 있으면 좋을 거 같은데 ... 꼭 그것만 안 듣고, 애들이 많아야 수요가 있어야 할 수 있는데, 좀 더 재미있게 하면 좋을 거 같아요. ... 다양한 체험 활동들이 있어야 애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어요.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거 같아요. (방과후 이용자1)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 폭넓게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뭘 하려고 하면 이게 안되고, 저걸 하려고 하면 또 이게 안되고 많이 있는데 뭐가 잘 안 맞아요. 시간도 그렇고, 공부도 시켜야 하고, 애들 스케줄이 빡빡하거든요. (방과후 이용자4)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다양한 활동이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도 아이들이 학교에 있고 싶어하지 않아요. 학교에 가고 싶어하지도 않는데, 하루종일 있어야 한다면 그건 좀 안 될 거 같아요. (돌봄교실 이용자6)

- 학부모들은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학습적 측면보다는 다양한 경험과 흥미를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음. 그래서 예체능이나 다양한 체험, 놀이, 운동과 같이 아이들이 더 흥미를 가질 수 있으면서 활동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하면 선생님께서 너무, 돌봄 선생님이 프로그램이 없으면 애가 이 시간까지 안 있을려고 하구요. 애가 어느 정도 흥미가 있는 프로그램 한두개 정도 있어야지 가능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음악이나 배드민턴이라던지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잘 할 수 있는 놀이같은거나 운동같은 거 있으면 괜찮

을 거 같아요. (아동센터 이용자1)

초등학생은 공부, 기본다져야 하니까 중요한데,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아동센터에서 그런 걸 많이 해 줘서 저는 좋더라고요. 같이. 혼자다보니 같이 뭔가 할 수 있고, 형제가 없다보니, 요즘은 집집마다 아이가 하나 아니면 둘이라서 아이들 끼리 부딪히는 것도, 그 안에서 싸우고 부딪히는 것도 필요해요. 그것도 나름 경험이라고 생각하구요. 어딜 같이 가는 거, 같이 경험하는 거. 거기서 배우는 것이 엄청 큰 거 같아요. (아동센터 이용자4)

저는 아이 스스로 자율성을 키울 수 있는 돌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체험 등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미가 없으면 애들은 안 하려고 하거든요. 아이들한테는 흥미를 가지게 하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돌봄교실 이용자5)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아이들 흥미를 끌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돌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과후 이용자5)

□ 장시간 학교돌봄에 대한 우려

- 늘봄학교에 대한 의견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많이 나온 반응은 아이들을 학교에서 오랜 시간 지내도록 하는 것에 대한 우려였음. 지금도 아이들이 학교를 별로 있고 싶거나 편안한 공간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학교에 더 오랜 시간 지내도록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음

늘봄교실이 부모님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안전하게 좀 더 퀄리티 있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계속 갇혀 있는 거라서. 정말 아이들 목소리를 들어보면, 있기 싫어할 거 같아요. 나오고 싶지, 하루종일 수업 받았는데 거기 또 계속 있으면, 창살없는 감옥이나 마찬가지로일 거 같아요. (아동센터 이용자2)

애들이 학교 가는 거 싫어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돌봄과 교육 개념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 들어요. (방과후 이용자2)

이렇게 학교에서 돌봄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이들이 늦게까지 학교에 있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교실에 갇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사실 아이들이 학교 공간을 좋아하지 않아요. 대부분 애들은 학교를 싫어해요. ... 가야하니까 가는 거 같아요. (돌봄교실 이용자3)

대부분 고학년이 되면 돌봄을 다 싫어해요. 학교에서 하는 것은 대체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학교선생님들이 아무래도 딱딱하잖아요. 고압적이고. 그래서 애들이 더 싫어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돌봄교실 이용자6)

- 하지만 이러한 학교돌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지금까지 초등돌봄교실과 같은 학교돌봄에 대한 부정적 경험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음. 기존의 학교돌봄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에게 친화적인 환경도 아니기 때문에 시간만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는 경향이 있었음

아이 입장에서 보면, 학교에서 돌봄시간이나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그 시간 동안 뭘 하면서 있을지,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있기 싫어할 거 같아요. (방과후 이용자4)

아이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애들이 집에 있는 반나절과 학교에서 있는 시간은 다를 것 같아요. 자유롭지 못하고 책상에 또 앉아 있어야 하니까요. 저는 보내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갑자기 필요할 때 아니면요. (돌봄센터 이용자2)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음, 장시간 학교에 있어야 한다면, 아이들이 피로도를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도 오랜 시간 학교에 있어야 하니까요. (방과후 이용자6)

-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저녁 8시까지 돌봄이 가능하다고 해도 대부분의 부모들은 매일 그렇게 이용하는 것을 기피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음

8시까지 하면 그만큼 학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 저도 매일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게 강하거든요. 애들 학원가는 게 많고, 굳이 늦은시간까지 있게 하지는 않을 거 같거든요. (아동센터 이용자1)

안 그러면, 8시까지 한다면. 매일은 이용은 안 할 거 같아요. (모두 동의) 저학년 애가, 학교도 일찍 마치고 1시 2시 마치는데, 그때부터 8시까지 부모님을 기다린다. 너무 슬플거 같아요. 시간과 주거나 다른 활동들이 잘 매치가 되어야 할 거 같아요. (아동센터 이용자4)

근데 7시부터 8시까지 있는다면, 애들이 다 있는 애는 아닐거예요. 일찍 오는 아이는 일찍 갈거고, 늦게 오는 아이는 늦게 갈거고. 만약에 7시부터 8시 까지 있는 아이가 있다면, 안 됐네요. (아동센터 이용자3)

늘봄학교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엄마의 입장에서는 나의 일하는 시간을 조정하지, 아이들을 더 오래 맡기지 않을 거 같아요. 아이도 오랜 시간 학교에 있고 싶어하지 않을 거 같아요. (방과후 이용자4)

항상, 매일 이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간혹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가끔 이용은 필요하나, 아이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돌봄센터 이용자2)

□ 늘봄학교로 인한 돌봄공백 해소 기대와 조건

- 하지만 늘봄학교 추진을 통해 돌봄공백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의 목소리도 있었음.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늦게까지 돌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결합된 에듀케어(educare)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들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음

저는 늘봄학교가 초등돌봄의 공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 맞벌이 부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자녀의 생애주기별 맞춤 돌봄정책이 촘촘하게 지원되면 돌봄 공백이 최소화될 것 같습니다. 에듀케어 기반 조성 시 대구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IB교육 뿐만 아니라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 또한 함께 접목되어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구시 교육 특성을 반영한 좋은 정책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돌봄교실 이용자2)

틀에 박힌 돌봄이 아니고 새로운 경험과 활동이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돌봄에서. 애들의 창의력을 키우고 싶은데, 너무 초등교육 안에서 너무 학업을 하는 것 보다는 좋은 거 같아요. 아이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끄집어 내고 말 할 수 있도록 하고, 칭찬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창의력을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늘봄학교가 그렇게 하려는 거지요? ... 저녁 8시까지 봐 줄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급할 때 쓸수 있는, 시간적인 도움이 될 수 있구요. (돌봄센터 이용자1)

저도 프리랜스로 일하려면, 늘봄학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이나 돌봄이 다 되고, 시간도 저녁까지 된다면 걱정 없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하니 다른 곳보다는 그래도 믿을 수 있어요. (방과후 이용자2)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잘하면 아이 키우는데 엄마가 일을 그만두지 않을 거 같습니다. 애 키우는 게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모두 일을 그만두고, 사는 게 빠듯합니다. 늘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돌봄교실 이용자3)

저는 늘봄학교는 필요한 거 같아요. 학교는 아무래도 다른 곳 보다 안전한 곳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할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돌봄교실 이용자6)

- 8시까지 돌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음. 현실적으로 일찍 집에 돌아오는 것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

각하였음

저는 늘봄학교에서 시간을 일찍, 늦게까지 운영한다고 하니깐, 필요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신청이 몰릴 것 같아요. 지금 다 함께센터는 9시 30분부터 6시까지 이용하도록 정부방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9시 출근하고 6시 퇴근하는 사람들은 이용할 수 없어요. 아니면 항상 빠듯하게 움직여야 하고, 힘들잖아요. 늘봄은 그런 부분은 없을 것이니 필요할 것 같아요. (돌봄센터 이용자2)

늦게까지 일하는 부모님같은 경우에는 8시까지 하면 괜찮을 거 같기는 한데, 애가 아침 일찍 나가서 8시까지 있으면 애가 너무 거기에 얽매어 있으면, 처음에는 괜찮을 거 같은데 그게 계속 그러면 애도 별로 안 좋아할 거 같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 급할 때 한번씩 하면 괜찮을 거 같기는 해요. (아동센터 이용자1)

시간을 늘리면 도움은 되겠죠. 지금 현재 그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백이, 돌봄공백이 발생하니까. 저녁 8시까지 봐 줄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급할 때 쓸수 있는, 시간적인 도움이 될 수 있구요. (돌봄센터 이용자1)

-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학교가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하였음. 지금도 눈치가 보여서 일찍 아이를 데려가는 마당에 늘봄학교는 그런 눈치를 보지 않고, 각자의 사정에 따라 일찍 데려갈 수도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임

학교는 가장 안전한 곳이니깐 늘봄학교는 긍정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돌봄교실도 5시까지이지만 4시되면 아이들이 거의 다 갑니다. 눈치가 보이니까요. ... 한 명이 남더라도,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아이돌봄 이용자2)

시간적 잣대를 대지 말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돌봄센터 이용자1)

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 오늘 엄마가 이러

이러해서 좀 더 일찍 갈 거 같애, 어느정도 시간이 될 거 같애.
초등학교 1학년 정도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 그러니까 그
런 부분은 시간적으로 딱, 몇시까지는 있어야 해요. 그런 건 안
되는 거 같아요.(아동센터 이용자3)

□ 인력확충 및 처우개선의 요구

- 늘봄학교가 질 좋은 돌봄이 되기 위해서는 인력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점
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었음. 기존의 초
등돌봄교실 돌봄의 질 문제가 핵심적으로 인력부족의 문제라고 인식하
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인력기준으로 늘봄학교가 진행되어서는
안된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돌봄수요가 많아 돌봄교사가 전담해야 하
는 학생 수와 행정 업무량이 많아져 돌봄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을까 하는 것입니다. 교사 대 학생 수의 적당한 비율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면 좋겠습니다. (돌봄교실 이용자2)

돌봄 선생님이 돌봄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까지 보시는 게 아니라,
점심때 가는 쌤 따로 있고, 그 선생님 퇴근하면 뒤에 시간제 선
생님을 두는 게 더 효율적이라 생각해요. 선생님 스트레스 덜 받
게(아동센터 이용자1)

방학때라면 오전 9시부터 봐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오전반, 오후
반, 저녁반 선생님 다 따로 있어야 할 거예요. (아이돌봄 이용자
1)

선생님들도 모두 지쳐 있어요. 선생님들이 새로 뽑아서 충원하지
않으면, 그게 먼저 되어야 해요. (방과후 이용자1)

늘봄학교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돌봄선생님도 추가적으로 더 많이 있어야 가능할 것 같아요. ...
선생님 충원 등 준비가 되지 않고 시작하면, 아이도, 엄마도 모두
불만이 쌓이게 될 겁니다. (돌봄교실 이용자4)

아이를 위해서도 선생님을 위해서도 돌봄선생님 수를 늘려야 할
거 같아요. 그래야 질 높은 돌봄이 될 거 같아요. ... 아이 하나

보기도 어려운데, 선생님 한 명당 돌보는 아이 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늘봄은 새로 인력이 충원되는 것 맞지요? 지금 선생님이 추가로 일을 더 하는 건 아니지요? (아이돌봄 이용자2)

돌봄교실의 학급당 학생 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두 선생님이 40명을 봐야 하는데, 정말 힘들지 않을까요? 교실도 너무 작아요. 일반교실보다 더 작은 곳에서 아이들이 복잡복잡해요. 돌봄 공간을 더 넓게 하고 선생님 한 명당 아이 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과후 이용자6)

- 또한 돌봄의 질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고용이 이루어지는 등 돌봄전담사의 처우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그렇지 않다면 우수한 인력이 올 수 없기 때문에 좋은 돌봄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었음

아동센터처럼 종합적으로 케어한다기보다는, 왔니? 출석하고 프로그램 가라, 간식 주고, 가고, 이거에 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늘봄교실을 어떻게 차별화를 할지, 그렇게 하려면 정말 우수한 선생님의 재질이, 풀 타임 선생님이 없으면 저는 망한다고 생각해요. (아동센터 이용자2)

말 그대로 선생님의 역량강화도 필요한 거 같고, 늘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오후시간 출근하셔서 오후 몇 시간, 몇 시간 파트근무를 하실 거예요. 아마도. 그런 같은 경우는 선생님도 그 몇 시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된 정직원의 급여를 받지 못하실 거예요. 못하는데 그만큼 투자와 시간투자와 자기 역량개발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할 수는 없거든요. ... 선생님들의 처우도 개선이 되어 줘야지, 선생님들 역량강화가 되지 않을까 해요. (아동센터 이용자3)

□ 유연한 이용과 식사제공, 공간에 대한 요구

- 기존의 학교돌봄에서 가장 불편한 점 중 하나는 입출입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었음. 그렇기 때문에 늘봄학교를 한다면 중간에 학원을 갔다

올수도 있도록 자유롭게 입출입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욕구가 많았음

늘봄학교 이용하다가 학원 필요하면 학원 가고, 학원 마치고 집으로 가던가 아니면 다시 늘봄학교로 가던가, 아이나 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사람은 언제고 어느 때고 이용하도록 해야 하는게 제일 중요할 거 같아요.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방과후 이용자4)

사실 학교 돌봄이 제일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사교육 때문에 돌봄교실 이용하지 못할 경우도 있는데, 사교육하고 와서 틈새시간에 돌봄교실 이용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돌봄교실 이용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학교 나갔다가 다시 학교 와서 돌봄교실에 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돌봄교실 이용자5)

늘봄을 늦게까지 한다면 학원갔다 다시 늘봄학교에 갈 수 있는 것도 고려되었으면 좋겠어요. 늘봄학교에 또 묶여서 학원을 못 간다면 아마 늘봄학교 이용자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학원, 늘봄학교를 하루에도 몇 번이나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돌봄 이용자2)

오늘 늘봄학교에 대해 처음 들었는데요. 오히려 시간제 어린이집 처럼 시간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시간에 학교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학원시간과 맞춰서 요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겁니다. (방과후 이용자 5)

늘봄학교는 학교 안과 밖을 자유롭게 왔다갔다 할 수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러면 엄마들이 좋아할 거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돌봄교실은 돌봄이 아니라 한 군데 몰아넣고, 관리감독하는 정도예요. 그것을 더 오랜 시간 한다는 것으로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방과후 이용자6)

- 또한 아이들이 아침부터 그리고 8시까지 있기 위해서는 식사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또 도시락을 따로 챙겨야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대로 식사가 제공되어야 한

다고 하였음

급식을 해결할 수 있는 늘봄교실이 되지 않으면, 그때 제가 왜 이게 안되냐 했더니 식중독 때문에 방학때 그걸 할 수 없어서, 도시락을 싸야 하잖아요. ... 늘봄은 양질의 선생님과 급식이 대구 시에서 해결되면 칭찬받지 않을까. ... 사실 아침은 좀 간단하게 요기만 해도 될 거 같아요. 콘플레이크 같은. 아침에 밥을 막 먹을 수 없을 거 같고. 교사가 먹일 수도 없고, 저녁은 식사가 제공되어야 할 거 같아요. (아동센터 이용자2)

늘봄은 저녁 8시까지, 늦게까지 학교에 있으면 급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엄마들에게 또 도시락을 싸 오라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이용하는 엄마들이 거의 없을 거 같아요. (방과후 이용자 3)

저녁 8시까지 한다면, 일시 돌봄이라도 아이들 식사는 또 어떻게 하나요? 8시까지 있으려면 저녁을 먹어야 하지 않을까요? ... 간식은 안되고, 저녁이 되어야 할 겁니다. (돌봄교실 이용자6)

- 또한 아이들이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기존의 교실은 아이들이 오래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임

아이들이 아플 때 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해요.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있어야 한다면 애들이 누워서 설 수도 있어야 할 거 같아요. 잠오면 잘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유로운 공간이 되었으면 해요. (방과후 이용자3)

아이들이 집에서처럼 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할 거라 생각해요. 지금 학교에 그런 공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새로 만드나요? ... 새로운 특화학교 아니면 학교가 오래 되어서 많이 낡았어요. 공간도 다 똑같고, 애들이 재미없어해요. (돌봄교실 이용자5)

□ 경력단절 여성, 노인일자리 활용

- 인력확충에 있어서는 어차피 자녀돌봄 때문에 경력단절된 학부모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었고, 참여자들은 모두 강한 공감 을 표시하였음. 돌봄의 질도 높일 수 있으면서 경력단절 여성의 문제 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음

이렇게 시간을 확대하면 돌봄선생님이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 그렇다면, 돌봄교실 선생님이 필요하다면, 우리 같은 전업주부
엄마들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요? 엄마들 일자리 창출도 되구요.
(참석자들 모두 손뼉까지 치면서 좋아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
다고 말함) 엄마들이 급식 봉사할 때도 정말 우리 아이처럼 대하
거든요. 아이들 케어는 지금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제일 잘 할
거예요. 다른 애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 자기 애들이 없는
반에서 일하면 되잖아요. (돌봄교실 이용자4)

능력있는 전업주부를 늘봄학교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좋습니다. 대
구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저도 일했으면 좋겠어요. (방과후 이
용자3)

저는 늘봄학교 돌봄교사를 충원한다면, 엄마들 일자리 창출이 되
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돌봄교실 이용자5)

- 또한 돌봄 프로그램에 노인일자리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었
음. 노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본 경험이 긍정적이었던 만큼
그러한 노인인력 활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이었음

우리 대한민국은 고령화시대라서 ... 노인인구의 자원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데, 저의 아버님만 봐도 퇴직하고 집에서 연금받고
따박따박 나오니까 집에서 놀고 계세요. 그런 아까운 인재들이 어
떤 사회의 그냥 나의 재능을 기부한다는 생각으로, 돌봄센터의 경
비라도 서면 ... 그런 자원의 인력을 활용하면 조금 더 잘 활용되
지 않을까. ... 단설유치원 다닐 때 안 그래도, 이야기할머니 하면
서 할머니들 오셔서 책읽어주는 거 하더라구요. 그때 할머니랑 사
는 애가 잘 없잖아요. 그렇다보니 그런 거 굉장히 좋아했었고. 아

이들도 좋아했어요. (돌봄센터 이용자1)

일부러 개량한복 입고 오셔서 이야기해주시면 아이들이 진짜 집중해서 들어요. 사실 이야기 할머니는 할머니가 아니셔요. 동네 조금 나이드신 아주머니 같은, 그만큼 자기관리를 하시는, 진짜 그래요. (모두 공감) 실제로 보면 전 할머니 아니시잖아요. (아동센터 이용자3)

- 또한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등하교 도우미와 같은 이동안전 확보방안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이 역시 ‘워킹스쿨버스’와 같은 노인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기도 하였음

저는 늘봄을 할 때, 등하교 도우미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른시간, 늦은시간 아니면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할 때도, 필요할 거 같아요. 큰 애들은 필요없지만 어린 저학년은 필요할 것 같아요. 부모가 시간을 못 맞출 수 있잖아요. (돌봄교실 이용자3)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업으로 ‘워킹스쿨버스’를 대구 전지역으로 확대하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부터 아동이 등하곳길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및 각종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업으로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가 집까지 안전하게 하교할 수 있도록 동행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 최근에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되기도 합니다. 대구는 현재 북구지역에서만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간 아동친화적 환경 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대구의 전 지역으로 확대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봄교실 이용자2)

<그림 V.1> 학부모 FGI 의견

초등돌봄의 문제	초등돌봄 이용경험	늘봄학교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초등학교 입학 후 돌봄 수요 늘지만 적절한 돌봄 어려워 직장 그만두게 됨·돌봄 제공시간과 퇴근 시간 불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까다로운 이용조건, 서류 작업 힘들어·초등돌봄교실은 안전하지만 돌봄이 없는 형식적 돌봄·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및 센터별 서비스 질 달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안전하고 유연하며 즐거운 돌봄·에듀케어로 돌봄공백 해소·학교가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되어야·경력단절 여성, 노인 일자리 연계로 인력 확충

CHAPTER

06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제언

VI.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더욱 중요하게 대두됨에 따라 현재 정부 부처별, 정책별로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아동돌봄서비스의 문제점을 다양한 관계자의 입장에서 고찰하는 가운데 특히 수요자 입장에서 분석하고, 국내의 선진지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의 자원에 기반한 통합적 초등돌봄 운영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 이에 현재 대구시에서 시행 중인 아동돌봄서비스의 법적 근거와 현황을 살펴보고, 타지역의 선진적 아동돌봄 운영실태를 현장조사하였으며, 아동돌봄 관계자 토론회 및 학부모 FGI를 통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음
- 연구질문은 첫째, 현재 대구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돌봄제도의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아동의 보호자가 인식하는 아동돌봄제도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셋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동돌봄제도의 구축방안은 무엇인가? 등 세 가지로 구성하였음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정책은 1991년 1월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보건복지부 주도로 학교, 복지관, 지역사회센터, 어린이집 등의 시설을 활용한 보육교실이 운영됨
- 아동돌봄정책은 전반적으로 영유아기 서비스가 먼저 발달하였으며 이후 영아기(신생아기), 아동기 순으로 확대됨. 초기에는 미취학 아동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학령기 아동들의 돌봄공백이 취업여성의 경력단절의 주요 원인이라고 인지되면서 아동돌봄정책이 확대되었음

- 1995년 교육개혁안은 학교 기반 돌봄서비스의 도입 및 확대 계기가 되었으며 1997년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학교 기반 돌봄서비스가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됨.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제 내로 흡수하기 위한 주요 대책으로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의 도입을 추진하였으며, 이후 2005년 전국 초·중·고등학교 48개교에 ‘방과후 학교’를 시범 운영하면서 맞벌이, 한부모, 빈곤 가정의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 및 지도할 수 있는 보육 프로그램이 도입됨
-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 이후 공교육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을 목적으로 방과후학교 정책이 시행되면서 초등보육교실을 방과후학교와 연계하였으며 2010년 초등학교 내 보육 교실이 현재와 같은 ‘초등돌봄교실’로 공식 명칭이 변경됨
- 아동돌봄정책의 두드러진 변화로 ‘범정부 돌봄서비스 체계의 구축’을 들 수 있음. 2016년 기준, 영유아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68.3%인 반면 초등학생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12.5%로 상대적 공급량은 적어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시기에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이 1만 6천여 명에 이르고(여성취업을 M커브) 가정 내 초등 저학년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초등돌봄은 시장화 현상을 보임. 이에 따라 정부는 초등돌봄서비스의 공급 부족과 돌봄의 사각지대를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온종일 돌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교육부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이 협력하는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사업을 추진함
-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학교, 교육지원청, 지역사회 관련 기관·단체가 연계·협력하여(지자체-교육청 간 업무협약 체결 필수) 지역 내 돌봄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대상과 운영시간 및 공간,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지자체와 교육청을 비롯한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연계협력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초등돌봄교실과 부모 퇴근 시간 사이에는 돌봄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에 초등돌봄교실만으로는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없다는 인식이 지속됨

- 현재의 초등돌봄교실은 학부모의 수요와 만족도가 높은 정책이지만 이때 ‘학부모의 만족도’에 유의할 필요도 있음. 정책의 대상인 학생의 입장이 아니라 학부모가 공교육기관인 학교에 맡긴다는 ‘안전돌봄에 대한 학부모의 선호’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음
- 초등돌봄교실 관련 주체별 입장을 보면 먼저 학부모는 학교 안에서의 돌봄을 선호하며 양적 확대와 프로그램의 질 개선을 원하고 있음. 교사는 학교는 돌봄보다 교육하는 장소라는 점을 강조하며 돌봄업무 경감으로 교육을 제대로 실시할 수 있기를 원함. 돌봄전담사 등 돌봄 관계자는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방안을 요구하며 아동돌봄 관련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들은 다양한 아동돌봄서비스의 통합적 운영 및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연계협력 모델을 필요함을 강조함
- 2023년 1월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늘봄학교’를 발표함. 늘봄학교는 ‘초등 전일제교육’이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으로 채택된, 이를 대신하는 용어로서 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금까지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여 돌봄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방안임
- 늘봄학교의 주요과제는 돌봄유형 다양화 및 서비스 질 제고, 늘봄학교 운영체제 구축 등임. 교육부는 교사 업무경감을 위해 단위학교 차원에서 운영되던 방과후 업무를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중심의 지역단위 운영체제로 전환하며 기존에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방과후·늘봄지원센터’로 확대하기로 함
- 늘봄학교는 전체 초등학교(6,100곳)의 3% 정도인 200곳에서 시범운영되며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 늘리고, 지역 단위 전담 운영센터 개설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임. 이때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단순한 교육 시간과 과정의 변화가 아니라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는 일임. 2021년 기준 초등학교 총 사교육비는 10조 5000억 원(1인당 32만8000원)에 달하며,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8배나 차이가 나므로 초등학교 때부터 학력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 아동돌봄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아동의 관점에서 생각하며, 돌봄서비스 이용자격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임. 아동이 돌봄대상이라는 이유로 권리주체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동의 ‘돌봄받을 권리’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대부분의 아동돌봄정책이 서비스 유형에 따라 자격요건을 두고 이용이 제한되는 상황을 극복하고 보편적 지원을 위한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하여야 할 것임
- 대구시 아동돌봄 관계자의 목소리는 다음의 다섯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먼저 대구시는 틈새돌봄사업이라는 대구형 돌봄사업을 코로나팬데믹 기간에 효과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이를 수행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오랜 돌봄서비스의 노하우를 살려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수행하였으며, 사업 수행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수그러들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둘째, 대구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1명의 전담사가 2개의 반을 관리하는 2실 1전담사 제도를 두고 있어 전담인력 활용방안이 보완되어야 함. 셋째, 돌봄의 패러다임이 개인에서 공공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적실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상생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임. 넷째, 향후 코로나팬데믹 시기를 어렵게 견뎌낸 아동들의 정서적 불안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아동들에 대한 돌봄이 보다 촘촘하게 설계되어야 함. 마지막으로 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돌봄전담사의 전문성 제고로 안정적이며 탄력적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임
- 아동돌봄선진지는 경상남도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서울시 ‘중구형 초등돌봄교실’과 서울 도봉구 ‘지역연계 방과후학교’ 등 세 군데를 현장방문하여 조사하였음
- 경상남도 거점통합센터 ‘늘봄’은 전국 최초의 교육청 주관 거점통합돌봄센터로 2021년 3월부터 저녁 20시까지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교실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동시에 수행함
 - 거점통합센터 설립 이후 기존 돌봄과의 차이점은 4시 30분까지 운영되던 돌봄시간이 저녁 8시까지 연장 운영되었으며 기존의 1~2학년 위

주에서 3~4학년도 수용하는 등 보다 많은 학생들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점, 맞춤형 공간에서 신체 활동과 정서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급식과 간식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 등을 들고 있음

-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의 성과는 무엇보다 거점통합돌봄모델을 창출했다는 데 있음. 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한 돌봄공백 해소, 우수 프로그램을 통한 전인적 성장 지원, 창의적인 공간 혁신 등의 성과는 통합거점센터의 모델이 됨
 -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사례의 시사점은 교육감의 교육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새로운 모델 창출의 주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하며 아동에 대한 교육기능과 보육기능의 분리보다는 교육과 보육을 함께 수행할 때 돌봄의 효과가 커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있음. 또한 교육감과 단체장의 협업이 통합돌봄을 가능하게 하며 원도심의 비어가는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등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돌봄 효과를 극대화하였다는 데 있음
- 서울시 중구의 ‘중구형 초등돌봄교실’은 수요에 대응한 빈틈없는 돌봄 체계 구축, 비용부담 없는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9년부터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대상으로 돌봄사업을 추진하였음. 학부모 수요조사 결과 돌봄 공간으로 학교를 선호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본연의 교육업무에 전념하지 못하는데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므로 학교는 교육을, 지자체는 돌봄을 책임지는 새로운 유형의 공교육 지원 방식을 도입하였음
- 이때 돌봄서비스의 새로운 운영주체로서 구청은 계획 수립, 인력 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당하고 시설관리공단은 돌봄인력 운용, 시설 관리, 안전관리, 급간식 운영 등의 역할을 담당함
 - 서울시 중구의 ‘중구형 초등돌봄교실’ 사례의 시사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돌봄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와 이에 따르는 예산 확보가 사업의 실행요소로서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고용승계를 통한 인력의 안정적인 활용으로 제도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였다는 점, 초기에 계획했던 일정한 돌봄시간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지

역사회, 특히 학부모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 있음

- 서울시 도봉구 ‘지역연계 방과후학교’는 학교 내에서 운영하던 방과후 학교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최초의 사례로 2017년 4개 학교를 시작으로 2022년 16개 초등학교가 참여하여 방과후학교를 운영함
 - 초등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도봉방과후활동운영센터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하는 최초의 방과후 돌봄이면서 지역 교육자원이 함께하는 교육 거버넌스를 실현함
 - 도봉형 마을방과후활동은 학교 안과 밖에서 이루어지며 이를 각각 도봉형 방과후학교, 도봉마을학교로 칭함. 도봉마을학교는 학교 안, 교실 안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보다 안전한 활동을 늘려야 한다는 의지가 만들어낸 사례로 시설 중심의 돌봄이 아니라 활동을 늘려서 학교 안이든 학교 밖이든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에 머물 수 있도록 함
 - 서울시 도봉구 ‘지역연계 방과후학교’ 사례의 시사점은 돌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혁신 교육, 지속가능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아동돌봄의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데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하였으며 마을의 다양한 물적·인적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서비스 시행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것임. 더불어 서울시 도봉구 ‘지역연계 방과후학교’는 교육청과 학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생태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사례로서 교육과 돌봄의 경계를 넘나드는 지속가능한 발전사례라는데 의의가 있음
- 학부모 FGI는 대구광역시 내 거주하며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역, 이용서비스를 고려하여 최종 22명의 면접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5회에 걸쳐 80분~130분간 실시함
 - 학부모에 대한 인터뷰 질문은 초등학교 입학 후의 돌봄 경험, 현재 이용하고 있는 주요한 돌봄서비스에 대한 의견, 자녀가 누리기를 원하는 돌봄서비스, 정부의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 대구시에 바라는 돌봄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었음
 - 인터뷰 결과는 초등돌봄의 문제, 초등돌봄 이용경험, 늘봄학교의 추진 방향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 먼저 초등돌봄의 문제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에 따라 직면하게 되는 돌봄문제를 토로함. 초등학교가 일찍 마치게 되면서 늦어도 3~4시면 집에 오게 되고 또한 어리기 때문에 잠시도 혼자 둘 수가 없는 상황을 토로하면서 공적돌봄과 사교육으로도 해결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함. 학교는 입학 때부터 제대로 설명조차 없고, 학원을 보낸다고 해도 문제가 생기거나,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됨. 인터뷰 참여자 중 돌봄문제로 인해 퇴직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직접적으로 말한 참여자만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초등학교 입학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었음
- 더불어 돌봄서비스 이용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까다로운 이용조건 문제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이 많았음. 신청과정에서부터 각종 서류를 요구하고 있어 쉽게 이용하기 어려웠으며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맞벌이나 재직 중임을 서류로 증명해야 하는 부분인데 구직 중이거나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증빙이 안되어 이용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었음. 특히 돌봄서비스에 관한 정보들은 단편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부재하였음
- 돌봄서비스 이용경험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먼저 초등돌봄교실 이용자들이 가장 만족하는 점은 학교 안의 공간이 안심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임. 하지만 학부모들은 형식적인 돌봄시간과 실제 돌봄을 이용하는 시간에 차이가 있음을 토로하며 그 이유에 대해 오래 아이를 맡길 경우 선생님이 싫은 기색을 내는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간도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래 있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음
- 돌봄의 질적 수준과 관련, 학부모들은 초등돌봄교실의 돌봄 수준이 질적으로 낮다고 느끼고 있었음. 실질적으로 그냥 출석 확인하고, 시간 맞추어서 내보내는 정도로 ‘돌봄이 없는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학교돌봄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돌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아이에 대한 죄책감까지 든다는 경우도

있음. 초등돌봄교실을 이용 시 문제점 중 하나는 돌봄시간 동안 입출입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임. 돌봄교실은 한번 나가면 다시 들어올 수 없어 중간에 학원을 가는 경우 부모의 퇴근시간까지 돌봄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인 경우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지역아동센터에서 인터뷰 참여자를 추천받았기 때문에 다소 편향이 있을 수 있으나 이용자들은 돌봄시간도 늦게까지 가능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 학습지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의 돌봄을 만족스럽게 느끼고 있었음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간의 특별한 제약이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음. 하지만 긴급하게 아이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오히려 이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음
- 다함께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만족감을 표현하였는데 특히 차량 운행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음. 돌봄의 질에 대해서는 불만족하는 목소리가 있었음
- 청소년 아카데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처음에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늘봄학교의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바라는 돌봄은 따뜻하고 안전한 돌봄, 유연한 돌봄, 즐거운 돌봄이며 장기간 학교돌봄에 대한 우려, 돌봄공백에 대한 해소 기대, 인력확충 및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유연한 이용과 식사제공, 공간에 대한 요구 등이 있었음
- 이상에서 대구시의 아동돌봄서비스와 관련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아동돌봄서비스가 다양한 부처에 의해 여러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되며 정보획득도 용이하지 않음. 여전히 돌봄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돌봄이 필요한 시간은 일치하지 않아 필요한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획일적인 통제가 이루어져 돌봄전담사와 학생, 그리고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학교 단위, 시설 단위의 돌봄으로 수요확보와 배치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어려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연계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사회 자원의 적절한 배치가 어렵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2. 정책적 제언

□ 늘봄학교 추진방향

○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

- 늘봄학교는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서 저녁 8시까지 돌봄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연구에서 드러나듯이 돌봄의 질 역시 실질적인 돌봄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나타나고 있음
- 현재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저녁돌봄을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낮은 돌봄의 질과 프로그램이 부실하여 아이들이 지루해하고, 그 결과 3~4시에 암묵적인 종료시간이 형성이 되어 그 이후 아이를 맡기는 것은 눈치가 보이는 일이라고 진술하고 있음
-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이에 따라 문제없이 늦은 시간까지 돌봄을 이용하는 모습이 나타남. 결국 돌봄시간만 8시까지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온 돌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늘봄학교는 에듀케어를 표방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제시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학습적 측면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예체능, 놀이, 운동과 같은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활동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충분하고 편안한 돌봄공간

-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을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에 대해

서 한편으로 돌봄공백 해소에 대한 기대가 있는 반면 아이들이 장기간 학교에 머무는 것에 대한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었음

- 기본적으로는 기존 초등돌봄교실의 돌봄의 질 문제도 있었지만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아이들에게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으며 기존 초등돌봄교실 공간 자체가 일반 교실과 차이가 없거나 협소하다는 지적도 있었음
- 따라서 늘봄교실이 아이들이 오래 머물만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충분한 공간 확보와 더불어 원할 때 설 수도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 자유로운 입출입과 통지시스템 결합

- 기존의 학교돌봄을 이용하는 것에 있어 가장 불편을 호소하는 문제 중 하나가 자유로운 입출입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었음. 한번 학교에서 나가면 다시 들어올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학원을 다녀오더라도 안전한 공간인 학교에서 머물기를 바라지만 이것이 허용되지 않았음
-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학부모들은 늘봄학교가 시행된다면 자유로운 입출입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었음. 학교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하며 그래야 학부모들도 아이들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임
- 또한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출입이 상시적으로 확인이 되도록 입출입에 대한 통지시스템 운영 역시 필요하다고 보임. 사례로 살펴본 서울 '중구형 초등돌봄교실'에서도 입출입 통지를 운영하였고 이에 대한 만족감이 높았음

○ 식사와 간식에 대한 질적 보장

- 저녁 8시까지 돌봄이 이루어진다면 학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필수적으로 저녁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그렇지 않다면 도시락 등을 별도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고 보고 있었음

- 현재 초등돌봄교실에서 간식이 제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았고, 심지어 먹기 싫어도 반강제적으로 먹어야 하는 상황이 있기도 하여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음
- 따라서 식사와 간식이 제공되는 것은 물론 질적 수준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단가도 적정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대구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단위로 규모있는 일괄계약 방식으로 질을 보장하는 방법이 모색될 수 있을 것임

○ 인력확충

- 현재 초등돌봄교실의 질적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인력부족의 문제이고 현재와 같이 20명 당 초등돌봄전담사 1인으로 운영되는 방식으로 늘봄학교가 추진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학부모들은 인식하고 있었음
- 초등돌봄전담사 1인이 20명의 아이들을 담당하다보니 실질적으로 돌봄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방치에 가깝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이 상태에서서는 질적인 돌봄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었음
- 따라서 늘봄학교가 의미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력확충은 필수적인 과제로 제시되고 있었으며, 특히 학부모들인 아이들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었던 여성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음.

○ 아이들의 안전한 이동보장

- 학부모들은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안전이 돌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그래서 특히 학교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호하기도 하였고, 학원 등을 이용할 때 차량이동 등 안전확보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도 하였음
- 따라서 학부모들이 늘봄학교를 안심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학교 안에서만 아니라 등하교 과정에서 안전이 보장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를 위한 등하교 도우미와 같은 안전지원 인력이 배치되기를 희망하고 있었음

- 아이들의 등하교길에 교통사고 등 예방을 위해서 이미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대구에서 일부 구·군에서 시행중인 워킹스쿨버스 사업을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확대하여 시행하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하였음

□ 지역단위 책임 돌봄체계 구성

○ 대구시 8개 구군과 대구시에 (가칭)미래교육협의회 구성

- 우리나라에는 이미 다양한 초등돌봄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학부모들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막막함을 경험하고 있고,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돌봄에 대한 지역의 책임있는 역할 수행을 위해서 '(가칭)미래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제안함
- 현재 초등돌봄교실에 이어 늘봄학교와 같은 학교돌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아카데미 등과 같은 돌봄서비스 뿐 아니라 다양한 마을자치 차원에서의 마을돌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돌봄체계를 총괄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함
- 또한 학부모들이 경험하고 있는 돌봄서비스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이러한 초등돌봄관련 협의회는 이전 온종일돌봄 정책에서 지역돌봄협의회로 추진된 바 있으며 대구시에서도 '대구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에서도 협의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지자체와 교육청 협력사업인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결합추진

- 이미 대구시 교육청은 구군 기초지자체와 함께 마을과 함께 다양한 교육을 만들어가는 '대구미래교육지구사업'을 2021년부터 대구시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시행 중에 있으므로 이와 같은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체계와 결합하여 추진하도록 함

- 이러한 미래교육지구사업을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들을 늘봄학교의 프로그램으로도 연계하여 늘봄학교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풍부하게 구성될 수 있을 것이며 서울 도봉구 ‘지역연계 방과후학교’ 사례처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임
- 또한 이러한 협력체계를 초등돌봄 컨트롤타워와 결합시킴으로서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아카데미 등 다양한 마을돌봄 주체들과 마을자치, 학부모 등의 참여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미래교육협약회의 운영 방안

- 미래교육협약회는 각 대구시와 각 구군별로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구성하여 지역 내의 학교, 마을돌봄 운영자,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하여 운영하도록 함
- 미래교육협약회 구성 및 운영업무는 지자체의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거나 늘봄학교 추진에 따라 구성되는 방과후·늘봄지원센터가 담당할 수 있을 것임
- 미래교육협약회를 통해서는 각 구군별로 매년 초등돌봄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공급계획을 수립하며, 방과후(늘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교돌봄과 마을돌봄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함
- 늘봄학교 추진 초기에는 분기별, 이후 반기별로 늘봄학교 운영, 마을돌봄과의 협력, 방과후(늘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도록 함

□ 초등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

○ 초등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초등돌봄서비스들이 존재하지만 학부

모들은 개별적인 홍보나 지인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음

-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때는 물론 취업, 출장 등 상황에 따라 학부모들은 막막한 경험을 하게 되고 이미 있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임
- 이미 '대구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에서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초등돌봄 관련 시스템을 운영한 사례들이 있지만 아직 전체 초등돌봄을 통합적으로 운영한 사례는 찾기 어려움

○ 초등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 방안

- 초등돌봄 통합 플랫폼이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학교돌봄, 또는 마을돌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활용가능한 학교돌봄, 마을돌봄에 대한 정보가 모두 포함이 되고, 이들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함
- 학부모들은 통합 플랫폼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돌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무관하게 희망하는 돌봄을 1, 2, 3지망 순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자격조건의 우선순위에 따라 가능한 돌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
-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시부터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안내는 입학예정시부터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매 학기보다는 최소 분기단위로 정기접수를 받아 학기 중에 발생하는 수요도 수용이 가능하도록 함
- 정원의 일정비율은 긴급돌봄의 수요로 남겨놓아 기존 돌봄의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긴급하게 돌봄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청하여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초등돌봄 통합 플랫폼 운영 방안

-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을 포괄하는 초등돌봄 통합 플랫폼으로 운영될

수 있기 위해 운영 및 관리 주체를 대구시 및 각 구군의 미래교육협의회가 맡도록 하고, 이를 통해 통합 신청과 배정을 책임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초등돌봄 통합 플랫폼을 통한 신청에 대해 최대한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미래교육협의회는 매년 수요조사에 기반하여 공급계획을 통해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인프라를 확충해나가도록 함. 이를 통해 구·군단위로 책임있는 돌봄의 총수요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음

○ 이상에서 통합적 아동돌봄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늘봄학교의 추진방향, 지역단위 돌봄체계 구성, 초등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하였음

- 늘봄학교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 충분하고 편안한 돌봄공간 확보 및 자유로운 입출입과 통지시스템과 안전한 이동, 식사와 간식의 질적 보장 및 인력확충이 이루어져야 함
- 학부모들의 정보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활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등돌봄 통합 플랫폼을 구축, 학교돌봄만 아니라 마을돌봄도 자격조건에 따라 1, 2, 3 지망 순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돌봄은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수요를 확보하여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초등돌봄 통합 플랫폼은 대구시 및 각 구군의 미래교육협의회가 운영 및 관리하여 책임있는 돌봄 관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참고문헌

- 강동여 외(2021). “돌봄자 관점에서 본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인문사회21, 제12권 6호.
- 강지원 · 이세미(2015). 아동청소년 돌봄정책 현황 분석, 보건복지포럼.
- 교육부(2022). 초등돌봄교실 운영길라잡이(개정판 2022).
- 교육부(2023). 늘봄학교 추진방안(안).
- 김송이(2022). “초등돌봄정책 추진 5년, 시민들이 생각하는 성과와 과제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리뷰 제9호.
- 김영빈(2022).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초등돌봄교실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 · 장수정 (2020) “초등대상의 공적서비스 이용 분석: 보편적 서비스 관점에서”, 한국가족복지학, 67(2), pp. 31-59.
- 김진석 · 백선희 · 정영모 · 김소영(2018).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표준모델 개발 및 제도화 방안, 범정부공동추진단.
- 김창복 외(2022). “초등돌봄전담사가 바라본 초등돌봄교실 근무실태와 개선 요구”, 방과후학교연구, 9권 3호 pp. 75-101.
- 대구광역시교육청(2023). 2023 늘봄학교 추진계획.
-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대구시돌봄정책연구회(2022), 대구시 돌봄정책연구회 2022토론회 자료집.
- 박성준(2022). “초등돌봄교실 서비스 수요 유형과 돌봄서비스 만족도 차이 분석”, 유아교육 · 보육복지연구, 26권 1호, pp. 147~167.
- 박해궁 · 류지선(2021). “아동돌봄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아동전문가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제41호, pp. 207~234.
- 배성우 외(2020). 대구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방안 연구. 대구광역시.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백경훈(2022). “돌봄윤리 관점의 성평등한 아동돌봄 제도”, 비판사회정책, 제 75호, pp. 61-94.
- 신권철·김도희·홍남희·김지우(2020).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률 마련 연구. 보

- 건복지부·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 신기왕 외(2022). “초등돌봄과 지자체 돌봄의 운영실태 비교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권 1호.
- 신동인(2022). 아동돌봄 법·제도에 나타난 아동의 주변화현상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신향희(2022). 초등돌봄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 안지혜·서혜전(2018). “한국의 마을기반 방과후돌봄 사례 분석”, 방과후아동지도연구, 15권 2호, pp. 19~40.
- 엄문영·황정훈(2022). “초등돌봄교실의 운영에 대한 학부모 요구 분석: 강원도 지역사례를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35권 3호, pp. 159~184.
- 이관표·윤준영(2022). “경기도어린이돌봄체계 강화를 위한 연구: 초등돌봄교실 운영현황과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방과후학교연구, 9권 2호, pp. 107~128.
- 장명림 등(2018). 학생·학부모 요구에 부응하는 초등돌봄서비스 내실화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장수정·송다영·백경훈(2019). “초등돌봄 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 공동육아 방과후 참여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62), pp. 251-287.
- 정설미·문희원·정동욱(2021). “돌봄과 교육의 혼합체(hybrid)로서 초등돌봄교실의 효과와 쟁점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39(5), pp. 85-114.
- 진명숙·권순지(2022). 초등돌봄노동의 유형과 성격- 돌봄전담사와의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답론201.
- 최권호 외(2021). 대구광역시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의회.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최윤경 외(2022)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 구축, 육아정책연구소.
- 최현임(2022). “보편적 초등아동 마을돌봄 모델개발 실행연구 -지역사회 아동돌봄체계에서 사회적자본의 역할 탐색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71권 2호.
- 하나영 외(2022). “방과 후 아동 ‘틈새돌봄’ 시범사업 성과연구 - 대구광역시

시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24권 제4호, pp. 109~133.
황성동(2015). 알기쉬운 사회복지조사방법론, 학지사.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뉴스빅데이터분석시스템 (<https://www.bigkinds.or.kr>).

대구광역시 교육청 (<https://www.dge.go.kr>).

방과후포털시스템 (<https://www.afterschool.go.kr>).

아동권리보장원 (<https://icareinfo.go.kr>).

다함께돌봄사업 (<https://dadol.or.kr>).

대구시 아동돌봄 현황조사와 진단을 통한 아동돌봄체계 구축방안 연구

인터뷰 질문지

1.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한 이후 돌봄에 대한 경험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하게 되면서 어떠한 돌봄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까?
 - 자녀의 돌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 자녀의 돌봄문제에 있어서 가장 막막한 경험은 무엇입니까?
 - 자녀의 돌봄문제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2. 현재 이용하고 있는 주요한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현재 자녀의 돌봄에 있어서 가장 주되게 이용하고 있는 돌봄은 무엇입니까(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태권도학원 등 사교육, 가족·친지 또는 본인에 의한 돌봄 등)?
 - 이용 중인 돌봄을 알게되거나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용 중인 돌봄이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이용 중인 돌봄에서 가장 아쉽거나 불편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3. 이용하고자 하는, 또는 자녀가 누렸으면 하는 돌봄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 가장 바람직한 초등돌봄은 어떠한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녀의 입장에서 돌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 부모의 입장에서 돌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4. 이번 정부가 발표한 ‘늘봄학교 추진방안’(별첨자료)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 교육과 돌봄을 결합한 에듀케어(Educare)를 표방하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요에 따라 저녁 8시까지, 오후 5시 이후에 일시돌봄 서비스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외 정부의 ‘늘봄학교 추진방안’이 현재의 어려움을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 정부의 ‘늘봄학교 추진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돌봄에 얼마나 근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 대구시에서 추진하였으면 하는 초등돌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 정부에서 추진 중인 ‘늘봄학교’를 대구시에서 한다면 어떠한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대로 된 초등돌봄을 대구시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위의 질문 이외에 대구시의 바람직한 초등돌봄을 위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